

襄陽文化

제30호



襄陽文化院

앙앙8경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온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서 크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며 앙양군민의 식수원이다.



5경 하조대



앙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 옥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속중 때 앙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기슭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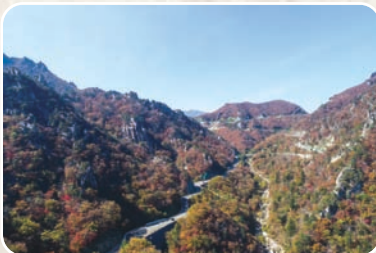
6경 죽도정



죽도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앙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둥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 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앙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이름다운 1중 국가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야산(襄野山)에 불사대가 있었으며, 어판장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항이다.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달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앙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襄陽文化

제30호

襄陽文化院



꿈을 주는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회원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금, 대출, 공제(보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양양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동부아트 建築士事務所
DONG-BU ART ARCHITECTS & ENGINEERS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5 대원 오피스 2층
TEL : (033) 671-2431 FAX : (033) 671-2502
E-mail : dart2431@naver.com

webhard : ydongbuy/2501



법무사 이재민 사무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84
전화 : 033-672-2845
팩스 : 033-672-2846



PHOTO CLUB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문화학교 개강식



제40회 양양문화제 만세운동재현행사



제3회 전국한시현장백일장



제8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제23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참가



청소년대상 기사문리만세교개 현지견학



청소년대상 향토문화 특강



문화원회원 및 수강생 유적지답사



경로효친문예작품공모 시상식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



문화학교 수강생대상 향토문화교육



강원문화대축전 참가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문화학교 수료식



대금배우기 강좌 증강식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9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11
신년사 양양군의회 의장 고제철	12
신년사 국회의원 이양수	14

향토사료

- 沙林寺와 禪林院의 연관성 考察
(제28회 강원도향토사연구발표 노력상 수상) | 향토사연구소 ----- 16
- 제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특별상 수상
향토사연구소 ----- 36

향토문화교육

- <특강> 희망의 양양 | 양연석 교수 ----- 37
- 양양 3.1만세운동 유적지 | 향토사연구소장 이철수 ----- 63
- 동해신묘 | 향토사연구소장 이철수 ----- 70

2018 문화학교 소개

- 2018 문화학교 소개 및 수강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 71
- 2018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 편집실 ----- 78

경로효친문예작품

- 입상현황 ----- 80
- 심사평 ----- 81

양양소식지 자료(숨어있는 향토사이야기)

- 설악은 양양의 진산으로 신라때부터 소사로 봉행 외(1월~12월) | 편집실 -- 90

양양 구석구석

- 양양해변 전망대 및 주변관광지 ----- 117

건강상식

- 류마티스 관절염 ----- 120

향토문화일꾼

- 양양문화임직원 조직도 ----- 126

2018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 129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 황금빛 태양이 쏘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

지난 한해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성원과 은혜를 보내주심에 머리 숙여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해 1년 동안 문화원의 모든 행사를 제30호 양양문화를 통하여 양양군민과 문화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양문화원은 지난해 문화원사 수리를 통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65일 항시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강생들께서 계절마다 다른 작품을 전시하게 하여 수강생 개인마다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마음 한편은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양양문화제와 전국한시백일장, 전국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잊혀져가는 옛 문화를 발굴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문화탐방을 당일로 진행하던 것을 1박2일로 변경하여 문화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전국 여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좀더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각종 연구실적과 향토연구 활동으로 교표각자(敎標刻字)의 새로운 발견으로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상을 받는 등 어느 해보다 보람되고 기쁜 한해였습니다.



양 양 문 화 원 장
윤 여 준

그리고 양양문화원은 3.1운동의 주역인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을 본받고자 양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알리고자 매진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양양의 만세운동은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조직적이며 격렬했던 지역으로 1919년 4월 4일 장날에는 수천군중이 장꾼으로 가장하고 옥양목으로 만든 태극기를 앞세워 울분에 찬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 시켰던 곳이기 때문에 “양양지역의 3.1운동사”라는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연구와 조사활동을 하여 올해 그 결과물로 후세에 양양의 만세운동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나이는 몇 살입니까?

문화학교는 일상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서예, 풍물, 악기, 미술 등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양문화원에서는 군민들이 문화적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개설하여 군민들께서도 문화학교에서 많은 배움을 통해 문화예술을 즐기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을 젊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양양군민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문화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고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좋은 기운을 품은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일들에 큰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하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선7기 출범 후 우리군은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이 활기차게 변화하는 본격적인 양양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심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 문화, 환경, 복지 등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양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또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동력 창출을 위한 전향적인 행정기구 개편,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 양양송이·연어축제 대성황 등 군민과 소통하고, 큰 화합을 통하여 군정의 주요 성과를 일궈낸은 물론, 양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한 층 더 드높였습니다.

2019년은“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도시 인프라를 더욱 더 굳건히 하고, 민선7기 출범 당시 선정한 비전과 역점시책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문화수준 높이기(Higher),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Open), 신산업 키우기(Promote), 늘리고 연결하기(Extend)라는 HOPE 전략을 통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을 이끌어 낸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가르침을 되새기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행운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장
고 제 철

먼저, 양양문화 제3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열성을 다해주시는 양양문화원 윤여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제8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양양에 있지 않아도 마음은 늘 양양을 향하여 응원을 아끼지 않는 출향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을 맞이하며 양양군의회는 더욱 열린 의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을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시너지 효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군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종합여객터미널 이전으로 도시 확장을 추진하고,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로 도시 생명력을 회복하며, 서핑의 산업화로 앞서는 관광휴양도시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차

질 없는 추진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도 우리 모두의 큰 과제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이 양 수

**밝고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밝고 희망찬 2019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언제나처럼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양문화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양양문화학교를 운영하며 군민여러분의 여가활동 증진에 앞장섰으며, 「문화가족 유적지 순례」, 「양양문화 발간」,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등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룩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양문화원 운영지원장님과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은 이러한 전통문화를 통해 양양군을 전국에 더욱 알릴 수 있었으며, 양양군을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 매력을 즐길 수 있었던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생존의 전제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문화 향유를 넘어, 우리 양양군민 여러분의 문화적 역량이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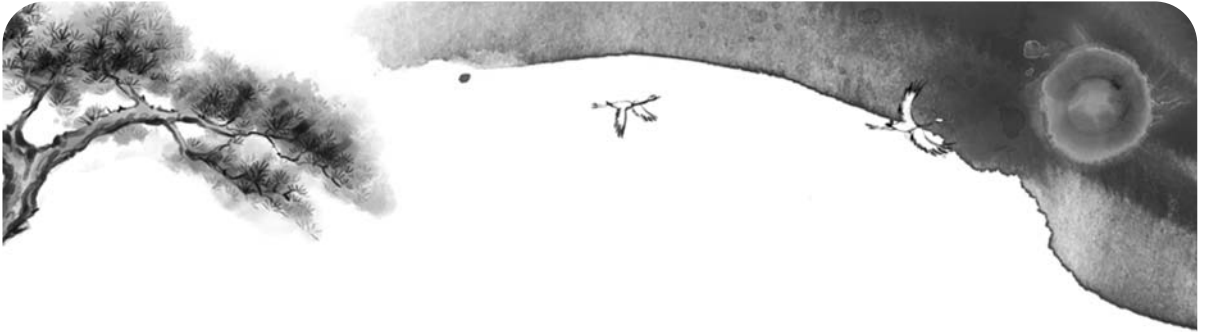
양의 발전을 이끌고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양양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2019년은 양양문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양양문화원은 군민의 문화학습장이며, 양양 문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원 가족여러분은 양양군 발전의 중심이자 현장의 지도자분들이십니다.

이에 다가올 2019년은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양양문화원이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저 또한 ‘모두가 행복한 양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양양군과 양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沙林寺 와 禪林院의 연관성 考察

〈襄陽 禪林院址를 중심으로〉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요약]

사림사(선림원)는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米川谷)에 있었던 사찰로 절터만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선림원지라 부르며 강원도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선림원지 삼층석탑, 선림원지 석등, 홍각선사탑비, 선림원지 부도 등의 중요 국보급 문화재들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 1948년 이 절터에서 출토된 신라범종(新羅梵鐘)의 내부 명문(銘文)중에는 해당 사찰 명이 아닌 약칭(略稱)으로 ‘당사(當寺)’ 즉 이 절로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것은 사림사(선림원)지를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는 억성사라 하고 그 외 학자마다 억성사(億聖寺)·사림사(沙林寺)·선림원(禪林院)이라 주장을 함으로써 하나의 사찰 이름이 셋으로 나뉘어 부르고 있다.

지금의 선림원지는 명칭 상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선림원지(禪林院址)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필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찰 명칭에 대해서도 중국 당나라 때에는 사(寺)와 원(院)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즉 사(寺)는 사찰 전체를 가리키는 어휘로, 원(院)은 사찰 속에 있는 특정한 기능의 별사(別舍)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 들여 사용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선림원지(禪林院址)는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順應法師)가 창업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절터에서 신라시대의 범종이 출토되면서 주조연대가 애장왕 5년(804)으로 밝혀져 절도 이때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범종의 명문(銘文)에는 ‘당사(當寺)’ 라고 표기 되어 이 절은 선림원(禪林院)이 아니라 사(寺)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명문(銘文) 중에 “이 절의 옛 종 쇠 이백 이십정을 밀천으로

삼읍이라 한 것은 순응법사가 이곳의 범종을 주조하기 전에 이미 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찰의 이름에 관한 문헌(文獻)은 여지도서, 양주읍지, 관동지 등 다수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고, 양양부사를 지낸 명암 이해조(李海朝)는 1709년 재임 시 남긴 현산삼십경(峴山三十景) 시제(詩題)에 “사림사(沙林寺)”라 하였다. 조선시대 대사헌을 지낸바 있는 홍경모의 관암전서에는 “신라 설악산 선림원 홍각선사비는 옛날 양양의 사림사에 있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선림원’과 ‘사림사’ 두 절이 신라 하대에 이곳에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해 한용운이 지은「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에는 신흥사·백담사·영혈사 등 사찰을 중수하거나 이전 복원 한 경우 기존의 사찰명칭과는 무관하게 개명한 것으로 기록 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불문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각선사가 함통 말년(870)에 이곳 역성사로 다시 들어와 머물면서 퇴락한 절의 금당(金堂)과 향사(香榭)를 대대적으로 중창한 후 기존의 역성사(億聖寺)를 사림사(沙林寺)로 개칭하고, 그 사찰 내에 있는 특정기능의 별사(別廬, 승방지)를 선림원(禪林院)으로 명명(命名)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 문제의 제기

천년고찰 선림원지는 신라대의 선찰(禪刹)이었던바 언제인지는 모르나 폐허가 된지 오래이며 현재 그 구기(舊基)만이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米川谷)에 남아있으며 양양군청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28km되는 산간지역¹⁾으로 강원도기념물 제53호(1982.11.3.)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선림원지 삼층석탑(보물 제444호), 선림원지 석등(보물 제445호), 홍각선사탑비(보물 제446호), 선림원지 부도(보물 제447호) 등의 중요 국보급 문화재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²⁾

지난 1948년 이곳에서 출토된 신라범종(新羅梵鐘)의 내부 명문(銘文)중에는 해당 사찰 고유명사가 아닌 약칭(略稱)으로 “당사(當寺)” 즉 이 절(그 절)로 표기하였다.³⁾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것은 선림원지를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는 절의 명



〈그림 1〉 서면 선림원지 위치도

1) 정영호, 「선림원 홍각선사탑의 추정」, 1974. p.231
 2) 한빛문화재연구원 「양양 선림원지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p.10
 3) 국립춘천박물관, 「선림원중.염거화상탑지」 연구조사보고서, 2014, p.57

칭을 억성사(億聖寺)라 추정하고, 학술논문지에는 학자마다 사림사(沙林寺) 또는 선림원(禪林院)으로 칭하고 있어 한 곳의 절 이름이 셋으로 나뉘어 불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에서도 흔치 않다고 본다.(그림 1) 반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선림원은 미천골에 있었던 절로 사림사(沙林寺)라 했다.

이와 같이 선림원지는 명칭 상 문제의 소지가 많음에도 작금의 상황은 선림원지(禪林院址)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필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절의 명칭을 찾아 내는 길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寺)와 원(院)에 대해 그 어원(語源)을 살펴보았다. 중국 “당나라 때에는 ‘사(寺)’와 ‘원(院)’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산둥반도의 적산촌(赤山村)에 있었던 신라인의 사찰 ‘법화원(法華院)’⁴⁾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은 선림원(禪林院), 문수원(文殊院) 등의 사찰이 있다. 그러나 당나라 이후에는 ‘사(寺)’를 ‘원(院)’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즉, ‘사(寺)’는 사찰 전체를 가리키는 어휘로, ‘원(院)’은 사찰 내에 있는 특정한 기능의 별사(別舍)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⁵⁾고 했다.

유홍준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를 보면 “선림원은 804년 순응법사가 창건한 절이다. 순응(順應)은 당나라 유학승 출신으로 가야산에서 초당을 짓고 수도하던 중 애장왕 왕비의 등창을 고쳐주어 왕의 하사금으로 해인사를 세운 스님이다. 해인사를 802년에 세운 순응이 2년 후에 선림원을 세우고 다시 수도처로 삼은 것이다.”⁶⁾라 했다. 이러한 연대추정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으나 이 절터에서 신라시대의 범종이 출토되면서 이 범종의 주조연대가 신라 애장왕 5년(804)으로 밝혀져 절도 이때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굴된 동종의 명문(銘文)을 보면 “貞元卅年甲申三月廿三日當寺鍾成內之古尸山郡仁近大乃末紫草里施賜乎古鍾金二百八十廷當寺古鍾金二百廿廷此以本爲內十方且越勸爲成內在之...(정원이년갑신삼월이십삼일 ‘당사’ 종성내지고시산군인근대내말자초리시사호고종금이백말십정당사고종금이백이십정차이분위내십방단월권위성내재지...)”⁷⁾라고 양각(陽刻)되어 있다.

범종에 ‘당사(當寺)’라고 표기 하였듯이 이 절의 명칭이 선림원 이라면 마땅히 당원(當院)이라 기록되어야 함에도 당사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절의 건립연대도 “당사의 옛 종에 시납을 받아 다시 주조하였다”고 하고 있어 정원 20년(804) 이전에 절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사찰의 이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공존한다. 명암 이해조(鳴巖李海朝)는 1709년 양양부사 재임시절에 남긴 현산삼십경(峴山三十景)의 시제(詩題)에 “사림사(沙林寺)라 했고, 조선시대 대사헌을 지낸 홍경모(1774~1851)의 관암전서(冠巖全書)책 23에 ‘신라 설악산 선림원 홍각선사비는 옛날 양양의 사림사(沙林寺)에 있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사림사와 선림원이라는 명칭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선림원

4) 당에 신라 사람들을 위해 세운 불교 사찰인 신라원 중 하나로 장보고가 설립함

5) 金鉉堧, 1991.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p.19

6)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1, 1993. p.232

7) 해석 : 정원 20년 갑신(804) 3월 23일에 당사의 종이 이루어지다. 고시산군(옥천군)의 인근 대내말과 자초리가 시납하신 옛 종의 쇠 280정과 당사의 옛 종의 쇠 220정, 이것으로 밀전을 삼고 사방의 단월들이 권하여 이루어졌다.

지를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는 현재 발굴한 선림원지는 역성사 였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한곳의 사찰 경내에서 절 명칭이 역성사·사림사·선림원 등 셋으로 나뉘어 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 '선림원지(禪林院址)'로 고착되어 가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고문헌을 바탕으로 옳은 절 명칭을 밝혀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에 있다.

II. 선림원지의 역사적 개관

1. 선림원지의 발굴조사 결과

선림원지 1차 발굴조사는 1985년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차 발굴조사는 다음해인 1986년 8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3차 발굴조사는 2015년 7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 양양 선림원지(약 9,096㎡)에 대해 (재단법인)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약보고서(略報告書)를 양양군청에 제출했다.(그림 2) 1~2차 발굴조사는 동국대학교 문명대(文明大)교수가 단장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 발굴조사 시는 금당지와 조사당지를, 2차 조사에서는 조사당지와 종각지, 추정 승방지를 발굴하고 금당지를 정리하였다. 3차 발굴조사는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발굴조사로 조사당지, 금당지, 승방지, 종각지 등의 유구가 3, 금동여래입상, 금동풍탁, 용면와, 막새기와, 와당, 금동장식, 철정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⁸⁾

1~2차 발굴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선림원은 804년경에 창건되었고, 전형적인 1탑식 산지가람(山地伽藍)으로 현재 발굴된 대부분의 기와는 9세기 후반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양식의 기와들이므로 이 때 일시에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후의 유물이나 유구, 기타 출토품이 전혀 없으므로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금당(金堂)과 조사당(祖師堂)이 함께 매몰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⁹⁾



〈그림 2〉 선림원지 유구분포도(출처:한빛문화재연구원)

1) 금당지 :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산사태로 일시에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주춧돌이 완전히 남아있고, 또한

8) 2016년 11월 선림원지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pp.31~36

9) 문명대, 『선림원지 발굴조사약보고서』, 1986. 참조

암막새, 수막새, 귀면와, 곱새와, 평와 등이 그대로 완존(完存)하므로 건물을 그대로 복원될 수 있는 초유의 증대한 자료이다. 특히 산간사원의 가람배치와 금당의 위치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 2) 비각과 조사당 : 금당의 서북편인 일단의 높은 대지의 중심부에 석등을 전면에 안치한 조사당이 정면 2칸, 측면 2칸의 정방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조사당의 동편에 홍각선사의 부도로 추정되는 부도대석이 서편에는 비각이 안치되어 있다.
- 3) 1차 출토유물 : 금은동불입상(金銀銅佛立像), 금동풍탁(金銅風鐸), 귀면와(鬼面瓦), 막새기와, 곱새기와, 비편 등이 1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되었다.
- 4) 종각지 : 금당의 동남쪽에 종각지로 추정되는 작은 규모의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 5) 승방지 : 미천골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곳에서 2개의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 6) 2차 출토유물 : 기와[瓦當], 금동손잡이 장식, 쇠부싯 돌, 토기편, 철 못 등이 발견되었다.
- 7) 3차 발굴조사 : 기존 건물지들 외에 추정 승방지, 부속 건물지 2동 등의 유구와 금동불, 청동정병, 풍탁, 와당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그림 3)



〈그림 3〉 승방지 출토 금동불상
(출처:한빛문화재연구원)

금당지는 서편에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막초석 건물지가 1동, 동편에는 방형으로 치석한 초석을 사용한 건물지 1동으로 총 2동의 건물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당은 조사하기 전 정면 3칸, 측면 2칸의 초석 외에 기존건물지의 기단부, 계단시설과 건물지 양쪽에 추가로 정면, 측면 각 1칸의 초석이 배열된 것이 확인되었고, 조사당 뒤편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축대 외에도 양쪽으로 조사당을 두르고 있는 축대가 5m가량 추가로 확인되었다.

추정 승방지는 남서길이 29.2m, 북동길이 25m, 너비 13m 내외로 기단부 내부에서 초석이 확인되었고 외출 방고래도 확인되었다. 부속건물은 2동이 확인되었는데, 부속건물지 1의 남동편은 얇은 골짜기가 만들어지면서 유구의 일부가 유실되었고, 부속 건물지 2는 현재 기와가 함몰되어 건물지를 덮고 있는 상태로 일부 석렬(石列)만이 확인되었다.(그림 4)

2. 선림원지의 역사인식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宗憲:종회에서 정한 규범)에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道義國師)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이하생략)” 라고 기록하고 있다. 가지산문의 선맥(禪脈)은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문(寶

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에 “달마는 당나라의 제1조이며, 우리 신라에서는 도의국사(道義國師)가 제1조, 염거선사(廉居禪師)가 제2조, 보조선사(普照禪師)체징이 제3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선종의 시조는 도의국사이다.

도의국사는 선덕왕 5년(784)부터 37년간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면서 오랜 기간 배워온 남선종(南禪宗)을 최초로 신라에 도입하려 했으나 당시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교종(敎宗) 불교계에서 환영받지 못하자 설악산 진전사에 은둔 수도하게 된다. 그 후 도의의 선문은 염거화상을 거쳐 체징에 의해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迦智山門)으로 개창된다.



(그림 4) 양양향토사연구원을 선임원지 3차 발굴지 답사(2015)

염거화상(廉居和尚)은 도의국사의 직제자(直弟子)이다. 그러나 염거화상은 스승이 머문 진전사가 아닌 억성사(億聖寺)에 머물면서 선법(禪法)을 계승하고 이를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에게 전하였다. 도의(道義)에 의하여 들어온 선종은 화엄적 선종사상으로써 초기 선사들은 화엄종 소속 사찰에 주석하면서 그 소속 사찰을 선종으로 서서히 전향시키는데, 도의의 진전사나 염거의 억성사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¹⁰⁾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체징의 창성탑비에 보면 “처음 도의선사가 서당(西堂)으로부터 심인(心印)을 전수받고 후일 우리나라에 돌아와 그 선의 이치를 가르쳤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경전의 가르침과 관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법만을 숭상하여 무위법(無爲法) 즉 선(禪)에 관심을 갖지 않고 허황한 것으로 여겨 높이여 중히 여기지 않았으니, 마치 달마조사가 양무제를 만났음에도 뜻이 통하지 못한 것과 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을 알고 산림에 은거하여 법을 염거선사에게 부촉(咐囑)했다. 이에 염거가 설산(雪山, 설악산) 억성사(億聖寺)에 머물면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여니 체징(體澄)선사가 가서 이를 섬겼다.(이하생략)”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염거화상(廉居和尚)은 중국 유학을 떠나지 않고, 설악산에 은거한 도의선사로부터 법을 전해 받아 억성사에서 이를 체징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염거화상이 머문 설악산 억성사는 홍각선사의 비문을 통해 다시 등장한다.

함통(咸通 860~873) 말에 다시 설산의 억성사로 가서 (마멸) 법당과 향사[절에 있는 누대(樓臺)의 미칭(美稱)]를 이루었다. 옥과 같이 좋은 나무들이 소나무 사이에 뒤섞여 있었으니, 은둔하는 것은 (마멸) 거슬렸으나, (마멸) 때에 명성은 우레처럼 세상을 울렸다. (마멸) 성상(현강왕)께서 명성을 듣고 그 덕을 사모하여 (마멸) 자나 깨나 (마멸) 선의 자취를 (마멸) 그리워하여 내연에 올라가 고공(苦空)을 강연하고 묘(마멸)를 얘기하니 (마멸) 이에 (마멸) 용안(마멸) 푸른 하늘을 보게 되었다. 다시 열흘이 지나지 않아 하직을 고하자,

10) 국립춘천박물관, 「선림원중.염거화상탑지」 연구조사보고서, 2014, p164

명을 내려 (마멸) 길에서 전승 하고 (마멸) 임금께서 또 사신을 보내 산에까지 호송하게 하였다.¹¹⁾

홍각선사 비문에 의하면 810년을 전후하여 경주에서 출생 하였는데 속명은 김이관(金利觀)이다. "홍각선사는 17세에 출가하여 해인사에서 화엄교리를 익힌 후 선을 배우고자 선림(禪林:선종사원)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합천 영암사에서 선정을 닦고, 설산 역성사에서 염거화상을 만나 선종 승려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82년 11월 15일, 홍각선사비 탁본이 박영순(당시 부산은행 근무)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해독된 비문은 "그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왔다"고 밝힘으로써 홍각선사가 당(唐)의 유학승(留學僧)임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¹²⁾

염거화상은 844년에 입적(入寂)하므로써 홍각선사가 그를 만난 시기는 염거화상의 말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염거화상이 입적한 이후에는 역성사를 떠나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합천 영암사를 다시 방문하고, 850년~860년대 혜복산 고달사 원감대사 현욱을 찾아가 제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통 말년인 873년[세수(世壽) 60세]의 홍각선사는 다시 역성사에 머물면서 염거화상 입적 후 퇴락한 절의 금당(金堂)과 누대(樓臺)를 중창(重創)하고 이곳에서 머물다가 880년 10월 21일 승랍(僧臘)50년, 세수(世壽)67세로 입적을 맞이하게 된다."¹³⁾

선림원 동중에 표기된 상화상 순응(上和上順應)은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으로 추정되며 종백사(鐘伯士)인 각지(覺智)는 신흥사의 전신인 선정사(禪定寺)에서 설법한 사림사(선림원) 소속의 승려인 바, 해인사, 진전사, 사림사(선림원), 선정사는 화엄종계열의 사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선(禪)을 배워온 초기의 선승들은 출국하기 전에 연고를 맺었던 원 소속종파의 사찰에 의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이 사림사(선림원)의 상화상으로 주종불사를 사실상 주관한 것은 순응이 원래 유학하기 전부터 사림사(선림원) 출신이거나 사림사(선림원)에 오래 주석(駐錫)했던 사림사(선림원) 소속 승려였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귀국한 후에도 사림사(선림원)에 머물렀다가 사림사(선림원)를 기반으로 해인사를 창건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⁴⁾

11) 禪咸通末復往於雪山億聖(마멸)成金殿與香榭參差琪樹共於松隱逆(마멸)於時響雷於世聖上聆風慕德(마멸)寤寐(마멸)觸仍昇內筵演苦空談妙是乎龍顏(마멸)以靚青天後不逾旬而告辭詔(마멸)錢路(마멸)上亦遣使衛送至山廣明元年冬十月廿一日詰旦(마멸)今法緣營盡汝等勉旃守道是日奄然遷(마멸)夏五十嗚呼生爲求俗亡以示滅(마멸)宸衷悼萬姓悲涼忍草凋衰慈雪慘絕(마멸)徒興追痛之哀弟子梵龍使義等百(마멸)惻恩命中官爭刻焉來年(마멸)贈諡曰弘覺禪師塔號爲禪鑑之塔巍巍(마멸)衣冠未流風塵冗吏(마멸)譽藝匪揚(마멸)陳紀述雜文多簡略事不繁書蓋春秋一字之(마멸)(함동말부왕어설산역성(마멸)성금전여향사참차기수공어승은역(마멸)어시에뢰어세성상령풍포덕(마멸)오매(마멸)선축임승내연연고공담묘시호통안(마멸)이도청천후불유순이고사조(마멸)전로(마멸)상역견사위승지산광명원년동십월입일일힐단(마멸)금법연영진여등면전수도시일엄연천(마멸)하오십오호생위구속망이시멸(마멸)신총도만성비량인초소직사설참절(마멸)도흥추통지에제자범룡사의등백(마멸)측은명중관쟁각언래년(마멸)증시월홍각선사탑호위선감지탑외외(마멸)의관말류풍진용리(마멸)예예비양(마멸)진기술수문다간락사불번서개춘추일자지(마멸)

12) 동아일보, 1982. 11. 16. 천년만에 햇빛 본 신라고승의 생애.

13) 『선림원종.염거화상탑지』 국립춘천박물관, 연구조사보고서, 2014, p165

14) 문명대, 『선림원본존불상문제와 석비로자나불상의 연구』, p.17

또한, 염거화상의 탐비가 일제강점기 원주 흥법사에서 반출되었다는 기록대로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여 왕사로 임명되고 흥법선원을 증진한 충담(忠湛)의 진공대사탑 비문에 보면 설산(雪山)에서 성도(成道)하였다고 하므로 충담 또한 염거화상이 주석했던 사림사(선림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¹⁵⁾ 선종계보에서 홍각선사는 선승 현욱(禪僧玄昱)¹⁶⁾의 제자가 됨으로서 봉림산문(鳳林山門)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지만, 873년경 가지산문 염거화상이 거하던 역성사로 다시 들어가 불사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가지산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順應法師)가 상화상으로 불사에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화엄종 소속 사찰로 도의의 제자 염거화상이 주석하면서 홍각선사와 보조선사 체징 등을 선종으로 전향하게하고 아울러 사림사(선림원) 자체까지도 선종화 시켰을 것으로 본다.¹⁷⁾

특히 체징의 가지산과와 다른 도의의 직계는 설악산의 진전사, 사림사(선림원), 선정사(신흥사)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다고 생각되므로 사림사(선림원)는 도의, 염거, 홍각으로 이어지는 설악산과의 중심사찰로 사림사(선림원) 불사를 새로 이루는 등 홍각선사 때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선종의 중심사찰로 추정된다.

Ⅲ. 역성사지(億聖寺址)로 보는 기록

역성사(億聖寺)는 우리나라 초기 선종사(禪宗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신라 하대의 사찰이다. 헌덕왕대에 남종선(南宗禪)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하였고 후에 가지산과의 초조(初組)가 되었던 도의선사(道義禪師)의 법을 이어받은 염거화상(廉居和尚)은 이 절에 주석하였으며, 가지산문의 실질적인 개창주인 체징(體澄)은 역성사에서 염거로부터 심인을 전해 받았다. 또한 홍각선사 이관(利觀)은 이곳에 머물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¹⁸⁾ 앞의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800년경 창건되었다가 900년을 전후한 시기 내지 10세기 전반기경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관계로 선림원지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고 했다. 먼저 범종에 새겨진 기록이다. 선림원지 범종은 1948년 10월경 숲 굽는 사람들에 의하여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어 월정사로 옮겨진지 2년 후 6.25전쟁 때 월정사와 함께 불타 파괴되어 일부 파편은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그림 5, 6) 범종의 내부의 명문(銘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 국립춘천박물관, 「선림원종.염거화상탑지」 연구조사보고서, 2014, pp.166-167

16) 현욱(玄昱, 788 ~ 869)은 남북국 시대 신라의 승려이다. 동명(東溟, 현재의 강원도 강릉) 출신이며, 시호는 원감화상(圓鑑和尚)이다. 선종구산 중 봉림산문을 세운 심희(審希)의 스승으로 봉림산문의 개산조로 일컬어진다

17) 앞 논문, p.166

18) 권덕영, 「홍각선사탑비문을 통해 본 신라 역성사지의 추정」, 1998. p.75

貞元廿年甲申三月廿三日當寺鍾成內之」
 정원이십년갑신삼월이십삼일당사종성내지」
 古尸山郡仁近大乃末紫草里施賜乎古鍾」
 고시산군인근대내말자초리시사호고중」
 金二百八十廷當寺古鍾金二百廿廷此以」
 금이백팔십정당사고종금이백이십정차이」
 本爲內十方且越勸爲成內在之」
 본위내십방단월권위성내제지」
 願旨是者法界有情皆佛道中到內去誓內」
 원지시자법계유정개불도중도내거서내」
 時寺聞賜主信廣夫人君」시사문사주신광부인군」
 上坐令妙寺 日照和上」상좌령묘사 일조화상」
 時司 元恩師」시사 원은사」
 鍾成在伯士當寺覺智師」중성재백사당사각지사」
 上和上 順應和上」상화상 순응화상」
 良惠師」양혜사」
 平法」평법」
 善覺師」선각사」
 如於」여어」
 日晶誓師」일정서사」
 宣司 禮覺師」선사 예각사」
 節唯乃 同說師」절유내 동설사」19)



〈그림 5〉1948년 발견당시
선림원종(국립춘천박물관)



〈그림 6〉파손된선림원종
(국립춘천박물관)

이 절이 선림원(禪林院)이라면 범종 명문(銘文)에 “당원(當院)”이라 양각(陽刻)되었어야 함에도 “당사(當寺)”라고 한 것은 선림원이 아니라 사(寺)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사의 옛 종 쇠 220정을 밀천으로 삼았다”고 하여 이미 절과 종이 함께 이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 해석문 : 정원 20년 갑신(804) 3월 23일에 당사의 종이 이루어지다. 고시산군의 인군 대내말과 자초리가 시납하신 옛종의 쇠 280정과 당사의 옛종의 쇠 220정, 이것으로 밀천을 삼고 사방의 단월들이 권하여 이루어졌다. 원하는 것은 법계의 유정이 다 불도에 이르러 감이다. 서원할 때 들으신 님은 신광부인님이다.
 상좌 영묘사의 일조화상 당시 감독 원은스님 종을 만든 박사 당사의 각지스님 상화상 순응화상 양혜스님 평법스님 선각스님 여어스님 일정서사선사 예각스님 당시의 유나 동설스님

다음은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체징(普照禪師體澄)창성탑비이다. 보조선사의 탑비를 보면 “처음 도의선사가 서당 지장(西堂智藏)²⁰⁾으로부터 심인(心印,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하여지는)을 전수받고 후일 우리나라에 돌아와 그 선(禪)의 이치를 가르쳤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경전의 가르침과 관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법만을 숭상하여 무위임운(無爲任運, 평상의 삶에 마음을 맡겨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음)의 중에 관심을 갖지 않고 허황한 것으로 여겨 높이어 중히 여기지 않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을 알고 산림에 은거하여 법을 얻거선사에게 부촉(咐囑)했다. 이에 염거화상이 설산 역성사에 머물면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여니 체징(體澄)선사가 가서 이를 섬겼다.(이하생략)”라고 적고 있다. 당시 염거화상은 설악산 역성사(億聖寺)에 머무르고 있었고, 체징은 염거화상으로 부터 선종(禪宗)을 전수받게 된다.

관암전서(冠巖全書)에 의하면 홍각선사탑비는 “판독할 수 있는 글자는 460여 자이고 글자의 점획이 팔팔 뛰려는 것 같고 삼장(三藏)의 서문과 서로 비슷하여 낮고 못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그림 7)

故弘覺禪師碑銘 并序

고홍각선사비명 병서

儒林郎守兵部郎中兼崇文館直學士賜緋魚袋臣金 蓮奉教撰「유림랑수병부랑중
겸승문관직학사사비어대신김원봉교찬」沙門臣雲徹奉教集晉右將軍王羲之書

사문신운철봉교집진우장군왕희지서(마멸)知法本不眞不假迺達禪宗是故譚
空而實在其中論實而空居其內迴曉千經之表恒彰萬象之(마멸)지법본불진불가
내달선종시고담공이실재기중론실이공거기내형호천경지표향창만상지(마멸)
端焉壞道體兼作化成自然非滅非生不增不減修之則了乎正覺得之則豈究其源斯
爲法焉法단언고도체겸작성자언비멸비생불증불감수지칙로호정각득지칙개
구기원사위법언법(마멸)掃跡於玄寂之鄉安靜於忘言之域其性弘覺禪師乎禪師
神岸清爽性覺非凡法海津梁(마멸)(마멸)소적어현적지향안정어망언지역기유
홍각선사호선사신안청상성각비법해진량(마멸)諱利觀字有者金姓京都人也
默識天竺(마멸)粹堅貞居一節操無儒處世得松竹之心安(마멸)휘리관자유자김
성경도인아목식천축(마멸)수건정거일절조무주처세득송죽지심안(마멸)文該
通書史一覽無遺誦讀經墳五(마멸)券之敏不爲尚也年十七遂剃髮披緇損俗문해
통서사일람무유송독경본오(마멸)권지민불위상야년십칠수체발피치손속(마
멸)往海印寺訪諸善知求其勝者參聞(마멸)如流義海無涯詞峰極峻蒼宿咸贊曰 後生(마멸)(마멸)왕해인사방제선지
구기승자참문(마멸)여류의해무애사봉극준기속함찬왈 후생(마멸)遊靈嶽遍詣禪林偶次凌峻便欲(마멸)翠泉雲奇
而復異絕昏埃之態幽而(마멸)유령악편예선림우차릉수편옥(마멸)취천운기이복이절흔애지태유이(마멸)敎聽者



〈그림 7〉 선림원 홍각선사탑비
촬영 : 김양식 연구원. 2015)

20) 당나라 때의 건화(虔化, 江西) 출신 선승(禪僧, 735-814)으로 속성(俗姓)은 요(廖)씨다. 8살 때 출가하여 25살 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불적암(佛迹巖)에서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을 뵈고 심인(心印)과 가사(袈裟)를 받아 그 법을 이었다.

無遠邇溱若雲屯禪師道(마멸)聖跡名山願周巡禮乃振(마멸)교청자무원이진악운둔선사소(마멸)성적명산원주순례 내진(마멸)年復於靈巖寺修定累月 諍罷徒(마멸)연복어령암사수정루월현효도(마멸)圓鑑大師自華歸國居于惠目山(마멸)원감대사자화귀국거우혜목산(마멸)架崖構壑重建創修月未暮而功成(마멸)禪師緇門模範(마멸)彩儼容觀觀者莫不神肅(마멸)가애구학중건창수월미기이공성(마멸)선사치문모범(마멸)채엄용관도자막불신숙(마멸)之爲上足咸通末復往於雪山億聖(마멸)成金殿與香榭參差琪樹共於松隱逆(마멸)於時響雷지위상족함말부앙어설산역성(마멸)성금전여향사참차기수공어송은역(마멸)어시에리러於世聖上聆風慕德(마멸)寤寐(마멸)禪麟仍鼻內筵演 苦空談妙是乎龍顏(마멸)以觀青天後어세성상령풍모덕(마멸)오매(마멸)선촉잉승내연연고공담묘시호룡안(마멸)이도청천후不逾旬而告辭(마멸)錢路(마멸)上亦遣使衛送至山廣明元年冬十月廿一日詰旦(마멸)今불유순이고사 조(마멸)전로(마멸)상역견사위송지산광명원년동십월입일일힐단(마멸)금法緣營盡汝等勉旃守道是日奄然遷(마멸)夏五十嗚呼生爲求俗亡以示滅(마멸)宸衷悼萬姓佯영연등면전수도시일엄연천(마멸)하오십오호생위구속망 이시멸(마멸)신충도만성悲涼忍草凋衰慈雪慘絕(마멸)徒興追痛之哀弟子梵龍使義等百(마멸)側命命中官爭刻焉來 年비랑인초조쇠자설참절(마멸)도흥추통지애제자범룡사의등백(마멸)측은명중관쟁각언래년(마멸)贈諡曰弘覺禪 師塔號爲禪鑑之塔巍巍(마멸)衣冠未流風塵冗吏 譽藝匪揚(마멸)陳紀述雖文多簡略事不繁書蓋春秋一字之(마멸)년(마멸)증시랄홍각선사탑후위선감지탑외외(마멸)의관말류풍진용리 예예비양(마멸)진기술수문다간략 사물번서개춘추일자지(마멸)大哉佛日有土皆周盛乎法 簡方不流辰韓酷尚 佛竺乾可竝王舍斯 師其弘 教聖跡皆遊(마멸)眞理了悟至道覺心鏡洞開 霜自鏤談法言表 廓論發傾河德存仰岳頻昇內座居 摧毀禪教削 謝人間蕭條禪室寂寞玄關(마멸)法要萬古誰攀 瞻遺影涕想生顏淒淒巖樹慘雲山豐 碑(마멸)大唐光啓二年丙午十月九日建車城(마멸)崔龔篆額報德寺沙門臣慧江刻字(마멸)대재불일유도개주성호법 간방불류진한혹상 수축건가병왕사사주사기홍고성적개유(마멸)진리료오지도경각심경동개 상자삭담법 언표 各론발경하덕존앙악빈승내자거 최혜선교삭 사인간소조선실적막현관(마멸) 법요만고수반 첨유영체상생안처처암수참참운산풍비(마멸)대당광계이년병오십월구일건차성(마멸)최경전역보 덕사사문신혜강각자²¹⁾

21) 해석 : (마멸) 고 흥각선사의 비명 및 서 유림량 수 병부랑중 겸 승문관 직학사이며 비어대를 하사받은 신 김원이 교를 받들어 짓고, 사문인 신 운철이 교를 받들어 진나라 우장군 왕희지의 글을 집자하다. (마멸) 법은 본래 진도 아니고 가도 아님을 알아야 선의 종취에 통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을 말하되 실이 그 속에 있고 실을 논하되 공이 그 안에 있어서, 멀리 천경의 밖까지 밝히고 항상 삼라만상의 萬을 드러낸다. (마멸) 도의 본체를 허물면서 아울러 화합하게 하니 자연히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며 더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것을 닦으면 마침내는 정각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그 근원을 궁구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법(마멸)은 그윽하고 고요한 고을에서 자취를 일소하고 말을 잊은 경지에서 편안하고 고요하니, (그 사람은) 바로 흥각선사가 아니겠는가! 선사는 정신이 뛰어난게 맑고 시원하며 본성의 깨달음이 비범하여, 법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나루터이자 다리였다. (마멸) 휘는 이관이요 자는 유자이며 (속성은) 김씨로서 서울 사람이다. 묵묵히 천축 알아 (마멸) 굳건한 정절로 한결같이 머무르매 절개와 지조는 짝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세상에 처함에 송죽 같은 마음을 지녔다. 편안히 (마멸) 두루 경서와 사서에 통하여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며, 삼황오제의 고전을 암송하는 기민함은 그보다 나을 수 없었다. 17세에 드디어 머리를 깎았으며, 승복을 입고 세속의 옷을 버렸다. (마멸) 해인사로 가서 여러 선지식을 찾아갔다. 그 뛰어난 것을 구하여 참예하고 듣는 것이 (마멸) 물흐르듯 하였으며, 뜻의 바다는 한량 없고 글의 봉우리는 드높았다. 노숙들이 모두 칭찬하기를, “후생이 (마멸)이라 하였다. (마멸) 영악에 노닐며 두루 선림을 찾았다. 우연히 어느 높은 산에 갔다가 문득 (마멸) 하고 자 하였다. (마멸) 푸른 샘물과 구름은 기이하고도 빼어나며, 노을진 모습은 그윽하면서도 (마멸)하였다. (마멸)을 가르치니 (이를) 듣는 자가 원근을 막론하고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선사는 (마멸) 성스런 자취와 명산에서 두루 순례하기를 원하였다. (마멸)을 떨쳤다. (마멸)년에 다시 영암사에서 여러 달 동안 선정을 닦았는데 떠들썩한 무리들 (마멸). 원감대사가 중국에서 귀국하여 혜목산에 머물며 (마멸) 산비탈에다 단단히 엮은 것을 새로 중건하니, 한 달이 채 못되어 완공되었다. (마멸)이 집집마다 가득

홍각선사가 “함통(咸通, 860~873) 말에 다시 설산의 억성사로 가서 (마멸) 금당과 불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탑비와 부도는 통상 열반하신 곳에 세워지는 것이 불교계의 상례이다. 또한 발굴조사결과도 통일신라 말기인 당시 금당과 누대의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홍경모(洪敬謨)의 관암전서(冠巖全書)에도 ‘신라 설산 선림원 홍각선사비’ 라고 적고 있어,²²⁾ 이곳 선림원지 터가 설산의 억성사(億聖寺)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권덕영 교수는 3종의 탁본자료와 5점의 비첩을 참조하여 비문 복원을 시도하면서 억성사를 지금의 선림원지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절 이름인 선림원이나 사림사는 원래 사찰 이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 수레가 성을 기울일 정도였다. (마멸) 선사는 불문의 모범이요, 모습과 풍채가 준엄하여, (그를) 보는 자는 정신이 엄숙해져 (마멸) 선사를 상적으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함통(860~874) 말에 다시 설산의 억성사로 가서 (마멸) 금당과 불전을 이루었다. 옥과 같이 좋은 나무들이 소나무 사이에 뒤섞여 있었으니, 은둔하는 것은 (마멸) 거슬렸으나, (마멸) 때에 명성은 우뢰처럼 세상을 울렸다. (마멸) 성상(현강왕?)께서 명성을 듣고 그 덕을 사모하여 (마멸) 자나깨나 (마멸) 선의 자취를 (마멸). 그리하여 내연에 올라가 고통을 강연하고 妙를 얘기하니 (마멸) 이에 (마멸) 용안(마멸) 푸른 하늘을 보게 되었다. 다시 열흘이 지나지 않아 하직을 고하자, 명을 내려 (마멸) 길에서 전송하고 (마멸) 임금께서 또 사신을 보내 산에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광명 원년(880: 현강왕 6) 겨울 10월 21일 아침에 (마멸), “이제 법의 인연이 다 되었다. 너희는 힘써 도를 지키라”하고, 그날 자연스레 입적하니 (마멸) 법랍이 50세였다. 아! 살아서는 세속을 구제하더니 죽어서는 멸함을 보이는 구나. 임금께서 (마멸) 애도하고 만 백성이 슬퍼하였으며, 인동초가 시들고 자애로운 눈발이 처절하였다. (마멸) 무리들이 추모하는 슬픔을 못이키니, 제자 범룡과 사의 등이 매우 슬퍼하였다. (마멸) 임금은 중관을 명하여 시각을 다투도록 하였다. 이듬해에 (마멸) 시호를 홍각선사라 증하고 탑호를 선감지탑이라 하였다. 드높도다 (마멸) 나는 벼슬아치의 말류요 풍진 속의 불품없는 관리로서 (마멸) 명예로운 재주가 빛나게 드날렀다. (마멸) 기술하였다. 비록 문장은 많이 간략하지만 일을 번잡하게 쓰지 않은 것은 대개 춘추에서 한 글자의 (마멸)

(마멸)

위대하도다 불일이여 모든 땅을 다 비추고,

성대하도다 법(마멸)여 흐르지 않는 곳이 없구나.

진한은 불법을 너무나도 숭상하여 (마멸)을 닦으니,

천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왕사성과 필적할 만하도다.

선사는 가르침을 펼치고 성스런 자취에 두루 노닐며,

(마멸)

참 이치를 깨달았고 지극한 도를 마침내 깨쳤으니,

마음 거울 환히 열려 (마멸) 서릿발이 절로 녹았다.

설법하는 말자락마다 (마멸)하니,

담론함에 강물을 기울인 듯하고 덕은 높아 산을 우러렸다.

대궐의 법좌에 자주 올랐으되, (마멸)

선의 가르침을 꺾고 헐뜯었으며, 기(期)를 깎고 하였다.

(마멸) 사람도 한적하고

선방이 적막하고, 현관(玄關)이 (마멸)

법의 요체를 (마멸) 만고에 뒤라서 붙잡을꼬.

(마멸)하며 남겨진 영정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산 얼굴 적시니,

바위와 나무가 처량하고 구름과 산봉우리도 쓸쓸하구나.

큰 비를(마멸) 대당 광개 2년(886:정강왕 1) 병오 10월 9일에 세우다. (마멸) 거성현의 최경이 비액의 전자를 쓰고 보덕사의 사문 신 혜강은 글자를 새기다.

[출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역주 한국고대금석문)』 Ⅲ(1992)]

22) 『관암전서』 23권, 사림사비

문명대 교수는 선림원은 역성사 일 가능성이 짙다고 할 수 있으나, 사림사는 선림원과는 구별되는 사찰로, 선림원과는 4km 떨어진 현재의 서림리 현서분교장 인근의 절터를 이르는 사명(寺名:서림사)이며, 고려 초나 일제강점기 때 산사태로 매몰된 선림원지에 있던 석조비로자나불상을 이곳으로 이안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선림원의 후신으로 보고 있다.²³⁾ 반면 정영호(鄭永鎬 전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는 서림사에 대해 “이 절터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왓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신라하대의 조성으로 추정되어서 신라시대에 서림사가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절은 선림원으로 가는 도중으로 서림리 골짜기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선림원 도량으로 가기 전 또 하나의 신라사원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²⁴⁾라고 함으로써 앞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사림사와 선림원 연관성

사림사(沙林寺)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09년 양양부사를 지낸 명암 이해조(1660~1711)의 현산 30경(峴山三十景) 시제(詩題)의 서문(序文)에는 “사림사는 부의 서쪽 70리 산협에 있는데 다만 폐허의 옛 절터만 남아 있다. 절 앞의 돌비에는 곧 매월당집(梅月堂集)에 왕희지(王羲之)의 글자체로 홍각선사(弘覺禪師)의 행적을 기록했다. 라고 했다. 필획이 완전하니 실물과 흡사하여 이 보물을 많은 사람이 완상한다. 근자에 나무꾼이 두들겨 부수어 조각난 비로 남아있다.”²⁵⁾라 기록되어 있다.

지리지(地理誌)인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1765), 양주읍지(襄州邑誌, 1823년), 양양 현산지(襄陽 峴山誌, 1823년), 관동지(關東誌, 1826년), 관동읍지(關東邑誌, 1868년), 양양군읍지 2(襄陽郡邑誌二, 1896년), 양양부읍지 전(襄陽府邑誌 全, 1911년)의 고적에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沙林寺碑 在府西三十里有沙林寺遺墟石碑金時習集王羲之字撰弘覺禪師碑字體古高世以爲寶中年爲野火所燒尙餘片石留在府中(사

23) 국립춘천박물관, 『선림원중.염거화상탑지』, 연구조사보고서, 2014, p.166

24)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상권 II, 불교, 2010. p.682.

25) 鳴巖集卷之四(명암집권지사(李海朝 襄陽府使, 이해조 양양부사 1709년), 峴山三十詠(현산삼십영)

沙林斷碑(사림단비)

沙林寺。在府西七十里山峽間。寺廢但有舊址。寺前石碑。卽梅月堂。集王右軍字。記弘覺禪師行迹者也。筆畫宛然逼真。人多寶玩。近爲樵牧撞碎斷碑猶存(사림사. 재부서칠십리산협간. 사폐단유구지. 사전석비. 즉매월당. 집왕우군자. 기홍각사행적자야. 필화완연 필진. 인다보완. 근위초목당쇄단비유존)

斷碣孰知寶。我欲宿其下。梅堂文高古。蘭亭筆變化(단갈숙지보. 아옥숙기하. 매당문고고. 란정필변화)

微分跳龍勢。能傳換鵝寫。羊公一片石。恨未此手借(미분도룡세. 능전환아사. 양공일편석. 한미차수차)

附和 子益(부화 자익)

頭陀日弘覺。不知何道者。梅月亦好奇。石面真傳寫。(두타일홍각. 불지하도자. 매월역호기. 석면분전사)

瘳鶴筆意活。換鵝風流假。如何未灰。斷荒林下(예학필의활. 환아풍류가. 여하검미회. 단부황림하)

東峯爲弘覺立碑。集右軍筆蹟而刻之云(동봉위홍각립비. 집우군필적이각지운)

림사비재부서삼십리유사림사유로석비금시습집왕희지자찬홍각선사비자체고고세이위보중년위야화소소상여편석류재부중”²⁶⁾이라 하였다.(그림 8)

관암 홍경모[冠巖 洪敬謨, 1774~1851. 성균관 대사성, 사헌부 대사헌, 강원도 관찰사 등]의 관암전서(冠巖全書) 책 23지(冊23志) 사의당지(四宜堂志) 사림사비(沙林寺碑)와 관암전서(冠巖全書) 책27 제후 동국묵적(題後東國墨蹟) 신라 홍각선사비(新羅弘覺禪師碑)의 글이 전하는데 해석문은 다음과 같다.

“신라 설악산의 선림원 홍각선사비는 옛날 양양의 사림사에 있었다. 병부랑중 김원(金蓮)²⁷⁾이 글을 짓고, 승려 운철(雲徹)은 진나라 우장군 왕희지의 글을 모아 비면에 썼으며, 차성현령(車城縣令) 최형(崔夔)은 전액을 썼다.”²⁸⁾라고 했다.

위를 종합할 때 통일신라 하대에 양양에는 사림사와 선림원이 공존하고 있었음이 문헌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권덕영 교수는 지리지인 「관동지」의 내용에 대해 잘못 기술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관동지」에서는 이 절을 沙林寺라 하였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불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관동지」의 관련 부분 내용을 보면, 홍각선사비문은 金時翺이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하여 찬술한 것'이라 하여 전혀 사리에 맞지 않게 기록하였다. 이점으로 보아 「관동지」 고적조의 해당 부분은 관련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과 정밀한 조사 없이 민간에 떠도는 속설에 의거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아도 크게 빛나간 추론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사림사라 칭한 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민간전승의 불확실한 명칭을 일제시대에 그대로 답습하여 사림사라 하였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 절을 사림사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림사라는 명칭 역시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의 본래 이름일 수가 없다.²⁹⁾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는 한문해석상의 특수성 내지 해석자의 식견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김시습은 홍각



〈그림 8〉사림사홍각선사비명
(출처 : 한국사DB)

26) 해석문 : 사림사비는 부 서쪽 30 리 소재 사림사 유취지에 있다. 김시습이 비석에 대하여 왕희지의 글자를 모아 지은 것이라 했다. 홍각선사비 글자체는 매우 오래되고 세상에 뛰어난 보물로 여겼는데 중년에 들불로 탄바 있으나 일찍이 남은 비석조각을 거두어 부중[양양도호부의 창고]에 두고 있다.

27) 三國史記 1卷 第三十九 雜志 第八

『崇文臺郎二人史四人從舍知二人』記事의 解釋文 註에 '沙林寺弘覺禪師碑文'를 지은 金蓮이 신라 말의 文翰機構인 송문대의 실무 관직인 '郎'의 一員이라 하였다.

28) 冠巖全書冊二十三志 四宜堂志 沙林寺碑.

新羅雲山禪林院弘覺禪師碑。在襄陽沙林寺。兵部郎中金蓮撰。沙門雲徹集晉右將軍王羲之書。車城縣令崔夔篆。

29) 권덕영, 『홍각선사탑비문을 통해 본 신라 역성사지의 추정』, 1998. p.79

선사비문을 보고 왕희지의 글자를 모아 지은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마치 김시습이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하여 찬술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옳지 않다고 본다. 만약 앞의 권덕영 교수의 주장이 옳았다면 『관동지』와 같은 내용이 「여지도서」·「관동읍지」·「양양군읍지2」·「양양 현산지」 등 지리지에 수록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의구심(疑懼心)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당시의 양양부사나 관련업무 책임자들이 홍각선사비와 관련 시대구분을 잘못해 통일신라 말 제작된 비의 글을 조선초기의 학자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이 찬술한 것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정영호 교수(전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도 “일제시대에 이곳을 사림사로 부르게 된 이유는 원래의 선림을 지방인들이 와전해서 불렀던 것을 일본인들이 그렇게 사용한테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선림(禪林)역시 앞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근거 없이 붙인 명칭에 불과하다.”³⁰⁾라고 하였다.

권덕영 교수와 정영호 교수(전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관동지와 같은 시기에 작성된 지리지인 양주읍지(襄州邑誌, 1823년)와 양양 현산지(襄陽峴山誌, 1823년) 고적편에는 “弘覺碑 新羅國雪山禪林院弘覺師碑兵部郎中金遠撰沙門雲徹集右軍字書車城縣令崔夔篆筆書逼真世以爲奇寶摸榻盆集土民甚苦之延以野火碑遂缺而尙有一片移處於府中礎礎之下今上丁卯府使安公慶運拾殘片留置府庫剝落不辨字畫(홍각비신라국설산선림원홍각사비병부랑중김원찬사문운철집우군자서차성현령최형전필서핍진세이위기보모탑분집토민심고지연이야화비수결이·그 외에도 한국사 역주기록(국사편찬위원회) 사림사(17건), 삼국사기 1 권 제39 잡지 제8 『송문대(崇文臺)』³¹⁾에 관한 해석문의 주208과 주209에 “사림사 홍각선사비(沙林寺弘覺禪師碑)”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은 폭넓은 자료수집이 안된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하나의 절터에 2개의 절(사림사·선림원)이 공존하였다는데 대해 이론이 없다고 보며 불교계의 불문율(不文律)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림사와 선림원의 해법(解法)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만해(萬海) 한용운이 지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을 보면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 자장율사가 설악산의 동에 향성사(香城寺)를 창건한 후, 신라 효소왕 7년 소실되자 효소왕 10년에 의상조사가 향성사를 능인암지(能仁庵址)에 중건하고 선정사(禪定寺)라 개칭하였다. 조선 인조 20년 선정사가 소실되자 인조 22년 사승 영서(靈瑞), 연옥(蓮玉), 혜원(惠元) 세분의 고승들이 10리 아래에 중건하고 신흥사(神興寺)라고 개칭(改稱)하였다.

백담사는 신라 진덕왕 원년 자장법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한계사(寒溪寺)를 창건하고 미타상(彌陀像) 3위를 조성 봉안한 후, 신라 원성왕 원년 소실되자 원성왕 6년 사승 종연, 광학, 영희, 법찰, 설흙 등이 아래 30리 지점으로 이전복원하고 운흥사(雲興寺)라 칭했고, 고려 성종 3년 운흥사가 소실되자 성종 6년 사승 동훈, 준

30) 정영호, 「선림원 홍각선사 탑의 추정」, 1974. p.235.

31) 신라 때, 왕실의 문관(文翰)과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관원으로 낭(郎) 2인, 사(史) 4인, 종사지(從舍知) 2인이 있었다

희 등이 북쪽으로 60리 지점으로 이전복원한 후 심원사(深源寺)라 칭하였다. 조선 세종 14년 심원사가 소실되자 세종 16년 사승 의준, 해섬, 취웅, 신영, 재익, 재화 등이 아래 30리 지점으로 이전복원한 후 선구사(旋龜寺)라 칭하였다. 조선 세종 25년에 다시 소실되자 세종 29년 서쪽으로 1리 지점으로 이전복원한 후 영취사(靈鷲寺)라고 개칭하였으며, 세조 원년 영취사가 소실되자 세조 2년 사승 재익, 재화, 신영 등이 상류 20리 지점에 이전복원한 후 백담사(百潭寺)라 개칭하였다.

영혈사(靈穴寺)는 신라 신문왕 9년(689)에 원효조사가 창건(創建)하였다. 조선 숙종 14년에 소실되자 이 절터에 숙종 16년에 취원(聚遠)스님이 중건하고 영천사(靈泉寺)라 칭하였는데, 이 절의 서쪽에 영천(靈泉:신령스러운 샘)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고종 24년에 지화(知和), 도윤(道允) 두 스님이 중수하고 다시 영혈사로 개칭했다. 또한 영혈사의 경우 원효대사가 입적한 때가 신문왕 6년(686)이므로 이곳 사찰의 창건 연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러한 창건 연혁의 연대는 고승대덕(高僧大德)을 창건조사로 모심으로써 각기 사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³²⁾

이와 같이 사찰을 중수하거나 소실된 사찰을 이전복원 할 경우 기존의 사찰명칭과는 무관하게 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교계의 불문율(不文律)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각선사가 기존의 역성사에 들어와 금당과 불전을 대대적으로 중창(重創)한 시기가 870년경으로 학계의 발굴조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각선사는 통일신라 말 이곳에서 불전을 대대적으로 중창한 후 기존(既存)의 사찰로 보는 역성사(億聖寺)를 사림사(沙林寺)라 개칭 하고, 사림사 내에 있는 별사(추정 승방지)를 선림원(禪林院)으로 명명(命名)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 사림사와 선림원의 폐사(廢寺) 추정

국립춘천박물관 소장품 조사연구보고서 1의 자료에 의하면 900년을 전후한 시기 내지 10세기 전반기 경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절터가 매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 산사태 발생 시기를 고려 초나 일제강점기 때로 보았다.³³⁾ 정영호 전 박물관장도 선림원지는 고려일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사된 것으로 보았다.³⁴⁾

이로보아 대홍수의 전거(典據)는 선조 38년(1605) 7월 23일 기사가 유력하다. “강원도·경상도의 수재 상

32)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상권 II. 불교, 2010. p.672.

33) 선림원종 엄거화사탑지. p.166.

34)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상권 II. 불교, 2010. p.702.

황을 열거하다.”의 기록을 일명 을사포락(乙巳浦落)이라고 하는데, 당시 강원도 영서에는 “20일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갑자기 큰 홍수가 저 객사와 관청, 군기·창곡을 휩쓸어 버렸고, 크게는 사찰과 작게는 촌락이 물이 지나친 곳은 모조리 쓸려나갔으며 우마와 가재도구도 남김없이 모두 익사하거나 떠내려갔다.”라 했다.

“양양(襄陽)은 부내(府內)의 100여 호의 대소인가(大小人家)가 재산과 가축이 일시에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형제 온 가족이 물에 빠지거나 산사태에 압사하여 여염 거리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해변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쌓였다.”³⁵⁾라고 했다.

어느 때 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소재 영혈사 주지가 제공해 준 사람사와 관련된 산사태 설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이 쏟아지는 폭우 속 어느 날 밤에 수많은 승려들이 걱정스레 요사(寮舍) 채에서 합장 불공하고 있었는데, 경내 뜰에 대호(大虎)가 나타나 북아치므로, 수장스님께서 염불을 멈추게 하고서, 대호(大虎)가 저렇게 날뛰는 것은 예사가 아니요, 누구를 데려가려고 저러는 것이 분명하니 한분씩 밖으로 나가 보자고 하였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스님들은 차례로 모두 나갔으나 대호는 여전히 들뛰며 북아친다. 이상히 여겨 인원을 점검하니 한분의 스님이 보이지 않아 찾아본 즉 요사 채 주방에서 저녁을 마친 설거지를 하는 스님이 있어 나오라 하였다. 주방담당 스님은 손도 닦지 않은 채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마당으로 나오니 대호는 순간 그 스님을 덥석 물고 획 날아가듯 어둠속을 가르는데, 벼락인가 광 우르르 광 광 어두운 밤 산을 부

35) 강원도 영서(嶺西)의 영월(寧越)·정선(旌善)·춘천(春川)·평창(平昌)·인제(麟蹄)·원주(原州)·횡성(橫城) 등 고을에 이번 7월 17일부터 동풍(東風)이 매일같이 크게 불더니, 바다의 갈매기 떼가 까맣게 날아왔는데, 보기에 매우 놀랍고 괴이하였다. 20일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갑자기 큰 홍수가 저 객사와 관청, 군기(軍器)·창곡(倉穀)을 휩쓸어 버렸고, 크게는 사찰과 작게는 촌락이 물이 지나친 곳은 모조리 쓸려나갔으며 우마(牛馬)와 가재 도구도 남김없이 모두 익사하거나 떠내려 갔다. 춘천은 소양정(昭陽亭) 누각이 부서지고 인물(人物)과 여사(廬舍)가 모두 매몰되었으며, 백곡이 손상되고 사석(沙石)이 뒤덮였다.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떠내려 가는 지붕 위에서는 닭이 울고 개가 짖어대며, 칼을 쓴 죄인이 물에 떠내려 오기도 하였다. 영월은 인가가 3백 39채나 떠내려 갔다.

영동(嶺東)은 강릉부(江陵府) 5리 밖에 남대천(南大川)이라는 냇가 있어, 전에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냇가에 나무를 심고 제방을 튼튼히 쌓았는데, 본부(本府)가 설립된 이후 남문(南門) 밖에서 관노비(官奴婢) 1백여 호와 기타 백성들의 사노비(私奴婢)가 많이 살고 있었다. 갑자기 큰물이 덮쳐 내를 막은 수구(水口)를 파괴하고 굉음을 내며 천지를 삼킬 듯이 밀어 닦치니 1백여 호의 관노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붕이나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나무가 뽑히고 집이 부서지니 일시에 떠내려가 처자와 형제 등 일가족이 줄줄이 비끄러맨 채 죽기도 하였다.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여 차마 듣고 보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부사(府使) 김홍미(金弘微)는 직접 남성(南城)에 가서 크게 통곡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담은 천여 석 지기가 모래에 뒤덮였고, 가옥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침수되어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다. 대관령(大關嶺)에서 해변에 이르기까지 기름진 냇은 벌판에는 까마득히 백사(白沙)만 보일 뿐이고 익사한 우마가 부지기수였다.

인제는 1백 2채가 떠내려 갔으니 수재가 영서 지방에서 더욱 참혹했다. 관사·공해·향교·창고가 모두 떠내려 갔고, 관아에서 5리 거리에 있는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부러지고 뿌리채 뽑혀 모두 떠내려 갔고, 허다한 전담은 백사장과 연못이 되었다. 양양(襄陽)은 부내(府內)의 백여호의 대소 인가가 재산과 가축이 일시에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형제 온 가족이 물에 빠지거나 산 사태에 압사하여 여염 거리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해변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쌓였다. 고원(高原)은 표몰된 인가가 1백 7채이고, 우마(牛馬)와 여러 가축들이 대부분 익사했다. 금성(金城)·간성(杆城)·평강(平康)·홍천(洪川)·양구(楊口)·철원(鐵原)도 수재가 참혹했다.

수دت 뒤흔들더니 높은 뒷산이 절개되어 삼시간에 절간을 덮쳐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했다.³⁶⁾

위의 역사적 자료들을 종합하면 선림원은 선조 38년(1605)에 있는 을사포락 때 산사태로 매몰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양주읍지(1823) 사찰조에 “사림사는 부 서쪽 40리 서림의 남쪽에 있는데 지금은 폐하여 졌다.”라 했고, 1747년 6월경에 “서림 사람이 바위 낭떠러지에서 쇠사발 대나무 하나를 얻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림사 폐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VI. 맺는말

사림사(선림원지)는 황이리 남쪽 미천골(米川谷)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신라 하대의 초기 선종사찰이다. 당시에 수많은 승려와 수도자들이 찾아 들었던 이곳은 조석으로 공양미를 씻은 물이 흘러내려 흰빛의 계곡을 만들었다고 해서 미천(米川)이라고 유래 한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이 발굴조사결과 무려 남서 길이 29.2m, 북동 길이 25m, 너비 13m의 ‘ㄱ’ 자형 대형 승방지와 부속건물 2동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림사(선림원)는 선종(禪宗)의 종조인 도의국사(道義國師)로부터 선법(禪法)을 승계한 염거화상, 가지산문의 개창주인 보조선사 체징,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 흥법선원(興法禪院)의 진공대사, 홍각선사 등 당대(當代)의 불교계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이 선법(禪法)을 익힌 설악산과의 중심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림사(선림원)에서 출토된 범종의 기록에 당사(當寺)라고 적고 있듯이 당시에는 선림원이 아닌 사찰(寺刹)이었고, “당사의 옛 종을 밭천 삼았다.” 고 하고 있듯이 정원20년(804) 종을 만들 당시에 이미 종과 사찰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보조선사 탐비에 보면 염거화상이 설산의 역성사에 머무르면서 선종을 전수했는가 하면, 홍각선사 탐비에 “함통(860~874) 말에 다시 설산의 역성사로 가서 금당과 불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런데 흥경모의 관암전서에 보면 “신라 설산의 선림원 홍각선사비는 옛날 양양의 사림사에 있었다.”라고 적고 있어 사림사(沙林寺)와 선림원(禪林院)이 이곳에 공존하였다는 사실과, 설산에 속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또한 선림원지의 발굴조사 결과에도 9세기말경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음도 확인되었으며 홍각선사의 탐비가 선림원지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곳 선림원지가 설산의 역성사(億聖寺)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역성사, 사림사, 선림원의 관계이다.

선림원지 1-2차 발굴조사결과 이 시대 이후의 유물이나 유구, 기타 출토품(특히 와당)이 전혀 없으므로 900년을 전후한 시기 내지 10세기 전반기경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금당지와 조사당 모두 매몰되었으며

36) 홍선(弘宣, 남, 나이미상, 영혈사 주지), 면담자료(2015. 4. 8).

그 후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갑자기 사림사라는 기록이 나타난다.

사림사(沙林寺)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09년 양양부사를 지낸 이해조의 현산 30경 시제(詩題)에 사림사비는 사림사 유허지에 있다고 한 후, 여지도서, 관동지, 관동읍지, 양양군읍지, 양주읍지, 양양현산지 등에 비슷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이외의 각종역사서의 주석과 연구논문 등에도 이를 인용하여 사림사 홍각선사비로 명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절터에 두개의 사찰명칭이 등장함은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寺)와 원(院)에 대해 그 어원(語源)을 살펴보았다. 중국 “당나라 때에는 ‘사(寺)’와 ‘원(院)’을 같은 의미로 보았고, 당나라 이후에는 ‘사(寺)’를 ‘원(院)’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즉, ”사(寺)는 사찰 전체를 가리키는 어휘로, 원(院)은 사찰 속에 있는 특정한 기능의 별사(別舍)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고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 들여 사용한다고 앞에서 밝힌바 있다.

그런데 만해 한용운(萬海韓龍雲)이 지은『진봉사급진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을 보면 신흥사·백담사·영혈사는 신라 때 창건한 절로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사찰을 중수하거나 소실된 사찰을 이전 복원 할 때마다 기존의 사찰명칭과는 무관하게 개명하였다. 이는 불교계의 불문율(不文律)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홍각선사도 870년경 이곳 역성사에 다시 돌아와 금당과 불전을 대대적으로 중창(重創)한 후 기존(既存)의 역성사(億聖寺)를 사림사(沙林寺)로 개칭하고, 사림사 내에 있는 별사(승방지)를 선림원(禪林院)으로 명명(命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은 홍각선사가 중국의 유학승으로서 선진사례를 받아들여 우리나라 초유의 사(寺)와 원(院)이 공존하는 사찰을 창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향후 본 사찰과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림사와 선림원이 대등관계의 절이 아니라 사찰 내에 속해있는 특정한 기능의 별사(승방지)를 지칭할 때 사용하였던 원(院)으로써 새로운 호칭을 ‘사림사의 선림원’ 또는 ‘사림사 경내의 선림원’으로써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감히 제안하면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폭넓은 연구로 옳은 절 명칭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문명대, 『선림원지 발굴조사약보고』, 1986.
정영호, 「선림원홍각선사탑의 추정」, 『이선근고희기념 한국학논총』, 1974
한빛문화재단연구소, 『양양선림원지정밀학술발굴조사』, 2015. 10.
문명대, 『선림원본존불상문제와 석비로자나불상의 연구』, 2002.
권덕영, 『홍각선사탑비문을 통해 본 신라 역성사지의 추정』, 1998.
국립춘천박물관, 『선림원중·염거화상탑지』, 1986.

- 한용운,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 1928.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1991.
 강릉대학교박물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4.
 신철균·정연우, 『양양 서림사지 석불좌상 및 삼층석탑 조사보고』, 1998.
 양양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 『양양역사자료집』, 2003.
 양언석, 『연암 박지원과 양양의 역사문화유적지 연계방안』, 2014.

《자료》

- 『삼국사기』, 권1.
 『명암집』, 권4.
 『여지도서』, 1765.
 『양주읍지』, 1823.
 『관동지』, 1826.
 『관암전서』, 책11, 책23, 책27, 1851.
 『관동읍지』, 1868.
 『양양군읍지』, 1896.
 『양양현산지』, 1911.
 『양양군지』, 2010.

《단행본》

- 金吉祥, 『佛敎大辭典』, 上·下, 弘法院, 1998.
 윤허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98.

《도움을 준 분》

- 홍선(弘宣, 남, 나이미상, 영혈사 주지), 면담자료(2015. 4. 8).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제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특별상 수상

[2018년 제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1.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2. 주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3. 후원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민속박물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4. 주제 및 공모부문
 - 주제 :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 사상, 지리, 문화, 역사 등 인문 · 민속 · 지역학 관련
 - 공모부문 : 4개 부문
 - ① 향토문화 논문 · 자료 ② 향토문화 콘텐츠
 - ③ 향토문화 수기 ④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5. 응모기간 : 8월1일~8월31일
6. 시상식 : 2018년 12월 10일 11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의실



희망의 양양

강원도립대 양언석 교수

수십만 마리의 연어 떼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
알을 낳기 위해 양양의 남대천 상류로 상류로 헤엄쳐 온다.

연어에게 알은 무엇일까?
그것이 희망이다.
연어에게 남대천이 희망이듯, 여러분은 양양의 희망이다.

모든 연어들이 죽음의 고비를 술하게 넘기면서 남대천까지 오게 된다.
하지만 남대천에 도착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연어떼를 가로막고 있다.
『연어』의 주인공 은빛연어는 이런말을한다.
그런데 이 험난한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는 이유가 고작 알을 낳기 위해서일까?
연어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모두 알을 낳기 위해서일까?

은빛연어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알을 낳기 위해 사는 것은,
먹기 위해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삶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은빛연어가 눈맑은 연어에게 말한다.

우리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유가 오직 알을 낳기 위해서 일까?
알을 낳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전부라고 너는 생각하니?
아닐거야?

연어에게는 연어만의 독특한 삶의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자신의 삶의 존재이유를 찾아 방황한다.

‘나뭇잎들은 강에 떨어져 아래로 아래로 떠내려간다.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간다는 뜻이야!
거슬러 오르는 것은 희망을 찾아가는 거야!
그건 희망이란 알을 낳는 것인가?

그러면서
연어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이 생각날 때마다
은빛연어는 부끄러워 어딘가로 숨고 싶었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연어떼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가 포기 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양양의 꿈이고 희망이다.

모든 사람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고생만하다가 죽어간다.

연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살다보면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다.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잠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처칠이 명문 옥스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위엄있는 차림으로 담배를 물고 식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천천히 모자와 담배를 연단에 내려놓았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입에서 나올 근사한 축사를 기대 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never give up!
그는 힘 있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뱉었다.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청중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give up!)

처칠은 다시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일곱번의 "never give up"
그것이 축사의 전부였다.

청중은 이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사실 이 박수는 그의 연설
그의 포기를 모르는 인생에 보낸 것이었다.

- 치질은 팔삭둥이 조산아로 태어나
- 말더듬이 학습 장애인으로 학교에서 꼴찌를 했고,
- 큰 체격과 쾌활한 성격 때문에
 긴방지고 교만하다는 오해를 받았으며,
- 초등학교 학적 기록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 로 기록되었다.

- 중학교 때에는 영어 과목에
 낙제 점수를 받아 3년이나 유급하였다.

- 결국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포드 대학에는
 입학할 수 없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 사관학교에도 두 차례나 낙방했다 들어갔고,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서도 낙선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도전해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졸업 연설 내용대로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되고,
세계대전의 영웅도 되고,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다.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한계와의 싸움이며
부단한 도전들과의 싸움이다.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답은 냉엄하다.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누가 최후의 승자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누가 궁극에 웃는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누구의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무지개가 뜬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

행복도 내가 만든다.
불행도 내가 만든다.
진실로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그러면
인생을 살 때
겁날 것이 없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이다.

古文眞實에 보면,

父母教而不學이면 子不愛其身也요

雖學而不勤이면 是亦不愛其身也요

勤勉하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卍凡한 眞理를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에는 자신을 사랑하기 보다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不滿을 갖고 葛藤한다.

어떻게 이 不滿과 葛藤을 解決할 수 있는가?

* 쥐의 結婚이야기

-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 葛藤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보다 나은 未來의 세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人生을 葛藤과 彷徨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톨스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길을 만난다.

이 길은 선택의 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는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신중한 문제이다.

- 공부를 할 것인가 - 친구랑 놀 것인가

- 미래를 위해 노력 - 현재를 즐길 것인가

사실 꿈이든 인생이든

누구나 선택 앞에서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상상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 하나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어느 쪽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어느 쪽이
나를 덜 아프게 하는가..
어느 쪽이
나를 더 사랑하는 길인가..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가?

지금, 우리는 이 空間에서 最高는 아니지만 最高가 되도록 열심히 勞力해야만 한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自身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自尊心이다.
청소년에게 자존심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 하는 반면

가장 뜻 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찌지는 못한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이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무엇이 될까?
병(瓶)에
물을 담으면 '물 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 병'
꿀을 담으면 '꿀 병'이 된다.

통(桶)에
물을 담으면 '물 통'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 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통'이 된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 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 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된다.

병(瓶)이나 통(桶)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드레 일에 쓰일 수도 있다.

꿀병이나 물통이나 밥 그릇 등
좋은 것을 담은 것들은
자주 닦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대신,

부정적인 것을 담은 것들은
한 번 쓰고 버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려는 나쁜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병, 통, 그릇들은
함부로 마구 다루면 깨어지거나
부서져서 곧 못쓰게 되기 쉽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들과 똑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 대접’을 받느냐
아니냐로 달라진다.

불만,
시기,
불평등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등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된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카르페 디엠! (carpe diem)
지금 즐겨라!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로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자신들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나이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은 소중한 친구와의 만남이다.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데미안』

데미안은 헤세의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독일 대표적인 교양소설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 싱클레아가 열 살이

던 라틴어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생인 청년기를 맞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휩쓸린 시기까지의 성장과정이다.

인생은 하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작가이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어떤 작가로, 어떤 작품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누구나에게 사랑 받는 작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보지 않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훌륭한 작품을 쓰려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간다.

-졸업하면 뭐가 되겠지 하는 漠然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자아발견에 있다.

인간의 삶이란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것.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린 싱클레아는 자기가정의 밝은 세계와 뒷골목의 어두운 곳에서 양분된 二元的인 두개의 삶을 살아간다.

-그의 가정은 신앙심이 깊고,

-평화로우며, 부모나 두 누나는 모두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싱클레아는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苦痛的인 삶을 살아간다.

이 작품은 제목이상으로 유명한 말이 있다.

“새는 알에서 깨야 나온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그 알은 새의 세계이다.

알에서 빠져 나오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의 곁으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플락사스라 한다.”

이 말은 새가 푸른 蒼空을 날아가려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껍질을 깨는 고통이 싫어 껍질 속에만 있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여러분에게 아픔은?

계란-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싱클레아는 항상 보호받는 가정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정의 평화로운 울타리를 배신하고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한 인연으로 못된 프란츠크로머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 경험한 대로 힘이 세고, 무서운 그리고 나이도 더 든 어른스러운 못된 아이에게 시달린다.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한다.

어느 날, 싱클레아는 크로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엉뚱한 거짓말로 武勇談을 자랑한다. “果樹園에서 사과를 많이 훔쳤다고 한다”

이것을 듣고 크로머는 이것을 威脅의 도구로 삼아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누나까지 데리고 나오게 하는 못된 것을 시킨다. 어린 싱클레아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위해 고통을 받는다.

이때 상급생이고, 의젓하고 지혜가 확실한 데미안을 만나 그의 힘의 영향을 받아 크로머를 퇴치한다.

이때부터 싱클레아에게 데미안은 친구요, 은인이요, 스승이다.

싱클레아는 성장의 한 방법으로 부정과 비판의식을 배운다.

-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 대한 긍정,
- 예수 處刑時 悔改한 強盜에 대한 嘲笑는

싱클레아의 靈魂을 뒤흔들어 놓는다.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싱클레아는 어떤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사춘기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外面하고 술로 나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극도의 불량학생이 되어 퇴학 조치까지 거론된 후 한 여인을 만나 頹廢的인 생활에서 벗어난다.

- 베아트리체
- 이성 친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 성공과 파멸
-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 .

그 후 그는 운명의 여인을 찾던 중,
대학에 진학하여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그녀를 만나서 자신의 운명의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부인은 잔잔한 미소와 사랑을 간직한 아름다운 부인이다.

에바부인은 싱클레아가 자기에게 사랑을 쏟는 것을 알고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로 미래를 약속한다.

에바부인은 싱클레아의 의식깊이 자리잡은 운명의 여인이고, 아프락사스의 신이다. 작품의 종결은 1차 세계 대전 중 데미안과 싱클레아는 참전하여 부상당한 후 데미안이 에바부인의 키스를 전해주면서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싱클레아는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에의 길로 들어 선다. 그 引導者는 바로 데미안이다.

데미안-크로머

이 작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付託하고 싶은 것은

데미안처럼 자신을 인정 해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 할 수 있는 친구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所重한 것이다.

친구란 자신의 단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못 생겨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친구가 없다면 각박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 생활동안... 아름다운 사랑과 멋진 친구를 만나기 바란다.

벗

내 주변에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 한다.

허물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준비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좋은 친구란,
나를 잘 알고,
나를 받아 주고
세상에서 다 내 치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마음의 벗이다.

좋은 친구란
내 모자람을
채워 주는 존재이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부족 하다.
그것을 내 친구가 채워 준다.
좋은 친구는 먼 데 있는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

그 친구가 지닌
좋은 요소,
좋은 향기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사람이 재산

어떤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상호간에 보완해 주는 것이다.
- 소심함, 결단력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 친구를 가졌다면
인생 자체가 든든해진다.

친구란 나를 먼저 주어야 만이
다가 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친구가 내 곁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성을 떠나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진정한 친구를 가졌다는 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법정 스님

루소와 밀레의 友情

해질녘 농부가 수확을 마치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
바로 프랑스의 화가 밀레의 “만종”에 그려진 유명한 이미지이다.

밀레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가지만,
처음부터 그의 그림이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그의 그림을 눈여겨 봐왔던 것은 평론가들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사상가 루소였다.
작품이 팔리지 않아 가난에 허덕이던 밀레에게 어느 날,
루소가 찾아 왔다.

“여보게, 드디어, 자네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네.”

밀레는 친구 루소의 말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밀레는 작품을 팔아본 적이 별로 없는 무명화가였기 때문이었다.

“어보게, 좋은 소식이 있네. 내가 화랑에 자네의 그림을 소개했더니 적극적으로 구입 의사를 밝히더군, 이것 봐, 나더러 그림을 골라 달라고 선금을 맡기더라니까.”

루소는 이렇게 말하며 밀레에게 300프랑을 건네주었다.
입에 풀칠할 길이 없어 막막하던 밀레에게 그 돈은 생명줄이었다.
또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리하여 밀레는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었고,
보다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후,
밀레의 작품은 진짜로 화단의 호평을 받아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된 밀레는 친구 루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루소가 남의 부탁이라면서 사간 그 그림이,
그의 거실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밀레는 그제야 친구 루소의 깊은 배려의 마음을 알고
그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였다.
가난에 찌들려 있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사려 깊은 루소는,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그림을 사주었다.

동행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 식사, 도서관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됩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을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 할 수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허 스님

*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가.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구걸을 하게 된다.
-어떤 친구

현실 속에서 당신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성장궤도가 변경되고
당신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

부지런한 사람이랑 함께하면 가난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랑 함께하면 평범하게 되지 않고
높은 사람이랑 함께하면 당신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적극적인 사람은 태양과도 같아 어디에서든 밝게 빛난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어떤 태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미래가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이다
절대로 당신을
소모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지마라.

당신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를 만나라.
- 좋은 글 중에서

* 만남의 중요성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시켜
그 종이를 주워오도록 한 다음.

"그것은 어떤 종이냐?" 고 물었습니다.
이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향을 썼던 종이입니다.
남아 있는 향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걸어가자 이번엔 길가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처님은 제자를 시켜 새끼줄을 주워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과 같이

"그것은 어떤 새끼줄이나?" 고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원래는 깨끗하였지만

살면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지만,

어리석은 이를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찾아 들게 마련이다.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만나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사람도 이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물들어 가는 것이다"

* 아름다운 우정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피시아스' 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효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시아스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형수들도

부모님과 작별인사를 하겠다고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가 멀리 도망간다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고심하고 있을 때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다몬아,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피시아스를 믿느냐?"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피시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만약 돌아오려 해도 그의 부모가 보내주지 않겠지.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다."

"저는 피시아스의 친구가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립니다니 부디 허락해주십시오 폐하"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다몬은 기쁜 마음으로 피시아스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이 죽게 됐다며 비웃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다몬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습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다몬이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집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때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재촉하여 달려오며 고향을 쳤습니다.
피시아스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피시아스가 말했습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피시아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몬과 피시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뒤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곁에 서있던 시종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地政學的이나 社會學的으로나 人類學的으로 매우 類似한 民族이다.

하지만 일본은 歷史를 歪曲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족이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역사를 記憶하고 있다. 자신들은 戰爭의 加害者가 아니라 被害者라고 생각한다.

反面에 우리 민족은 지나온 역사를 너무나 쉽게 妄覺하는 民族이다.

日本과 우리의 共通點이 있다면 戰爭의 性格은 다르지만 전쟁의 廢墟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세계 最強의 富國이라는 것이다. 이 原因은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불행이 反復되지 않기를 원한다.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政治, 社會적인 삶의 形態를 보면 日帝가 우리를 强占했던 그 時期의 狀況과 무척 類似하다고 생각한다.

- 朝鮮을 黨派싸움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 오늘날은 어떤가? 당이 아니라 地域,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占領했던 過去의 歷史를 妄覺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 다시 불행할 수도 있다.

總督府의 建物을 헐고,

우리의 民族의 精氣를 끊기 위해 山脈에 박아 놓은 쇠말뚝을 빼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의 세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일본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만 한다.

일본이 美國과 戰爭 貿易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外相은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民族이다”라고 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어떤가?

6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질 때 왜 치마를 뒤 집어 썼는가 ===

미국이 우리에게 그들의 農産物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通關照査 전에 農藥을 照査하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먹인 다음에 통관조사 하라는 것이다. 사실 그들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농약이 檢出된다. 쉽게 말하면 과일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毒藥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文民政府를 외치는 어느 爲政者하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하나 없다.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우

리의 靑少年들은 외국담배와 毒藥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 클린턴은 담배를 痲藥으로 規定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그 마약을 먹으라고 강요한다. 아무 거부도 없이 여러분은 마약을 먹고 있다.

아마도 獨立을 위해 滿洲에서 말달리던 先驅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 왔다면 아마도 이곳이 어딘지 몰라 말 타고 돌아갈 지도 모른다.

國際化時代에 世界化는 重要하다.

하지만 世界化란 무엇인가.

가장 韓國的인 것이 世界的이라는 말을 우리는 記憶해야만 한다.

國際化 時代 그리고 混亂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 나는 누구인가.

1. 학생이다-배우는 사람.
2. 부모자식이다-부모의 사랑에 보답
3. 사회인-이 사회를 책임져야 한다.

戰爭의 廢墟 속에서 우리의 爲政者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외국에서 援助를 얻어서라도 배불리 먹이겠다고 했다. 이것은 한 政治家의 意識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意識이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전쟁의 廢墟 속에서 빵보다는 젊은이들에게 希望을 심어주고자 努力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의 유명한 哲學家나 文學家들을 불러다 젊은이들에게 希望을 심어 주었다.

이 때,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일본에서 생활하다 공항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

1. 소년이어 野望을 가져라

-Boys be ambition

나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 주고 싶다.

패배의식을 떨쳐버리려야 한다. 이제는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未來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젊은이에게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未來도 없다.

여러분이 어떤 野望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人生은 變化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이 野望을 갖게 되면 行動이 變化되고,
行動이 變化되면 여러분의 意識이 變化된다.

성공한 사람-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잘 관찰해 보면 습관이다.
나쁜 습관은 하나하나 씩 버리고,
좋은 습관은 하나하나 씩 가져야 한다.

2. 행동-Action

때로는 이룰 수 없는 너무나 큰 야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야망은 컸지만 그는 하나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이다.
그래서 그는 막노동을 하고 부둣가에서 배를 타고,
희망을 잃은 자는 사회에 대하여 不滿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불만을 가질수록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疏外者가 된다.

행복의 문

일생동안 문밖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다.

한 번도 문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죽을 무렵이나 되어서 문지기에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반가워서 말했습니다.
"이 문은 당신의 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문을 열어 드리려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문지기에게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나
열어 보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별써 그 문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문이 열리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그 행복의 문으로 들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사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나이를 먹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늘 이렇게
시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꿈에 불과하고
내일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잘 살아간다면
모든 과거를 행복한 꿈으로
미래를 꿈꾸던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選擇이다.
苦痛-快樂

미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다.

野望을 가지고 있지만 未來를 위해 準備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는다.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家族을 重視하는 사회도 없다. 때로 공부하기 싫을 때,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에게 登錄金을 대주고 生活費를 보내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보내 주시는 것이다.

그 분들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한다.

여러분처럼 健康하고 귀엽게 키워주신 분들께 이제 報答을 해드려야만 한다. 그 報答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것이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희망이다. 그리고 미래.

요즈음처럼 자식도 많이 낳지 않은 집에서 논다면 그 집안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자식이라도 자신의 일자리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 집안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 - 지금은 모두 친구이지만 ----

野望을 갖고 열심히 行動한다면 여러분이 이루고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업적-Achievement

野望--行動--業績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사랑과 成功은 기다리지 않는다-

양양 3.1만세운동 유적지 (기사문리 만세고개)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이철수 소장



〈기사문리만세유적지 3.1절 기념식〉

1919년 4월 9일 3.1만세운동 당시 많은 사상자를 낸 곳이다. 상광정리 감리교회 오세욱이 주동이 되어, 이응렬, 오익환, 김재한, 박원병, 오정현, 김종대, 그리고 현북면 각 마을 구장들이 만세운동 계획을 추진하였다.

각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한사람 이상씩 동원되어 4월 9일 양양장으로 갈 계획으로 상광정리 현북면사무소 앞에 모였는데, 일본 측 기록 약 600백 명(실제 1천여 명)이 모였다.

군중들은 면사무소 주변에서 기세 높게 만세를 불렀고, 그 여세를 몰아 양양으로 가려고 하자 지역에 신망이 높던 김익제가 양양에는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만류하자, 그 계획을 바꾸어 약 1km 떨어진 기사문리 경찰주재소로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

또한 하광정리에 모인 만세군중 이외 장꾼과 구경하러 나온 아이들도 모두 만세군중에 합류하여, 군중 일부는 길가의 가로수 지주목을 빼어들고 노래를 부르며 고개를 넘어갔다.

조선독립만세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자 경찰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 잠복하고 있던 일본경찰과 수비대가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하광정리 전원거, 중광정리 임병익, 명지리 홍필삼, 김석희, 어성전리 고대선, 황응상, 말곡리 문중상, 도천면 속초리 진원팔, 이학봉이 그 자리에서 피살되었고, 또한 19명은 형무소에서 실형을 살았으며 태형을 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다.



양양 3.1만세운동 유적지 (물치장 터)



〈물치 만세운동 기념식(양양문화원)〉

1919년 4월 5일 강현면민과 도천면민이 3·1만세운동을 벌인 곳이다.

이석범 선생은 3월 1일 한성의 고종 인산에 참례하고 3월 하순 독립선언서를 몰래 가지고 중도문리(현 속초시)로 돌아와 동생 이국범, 아들 이능렬과 함께 만세운동 계획을 세웠다.

4월 3일 도천면은 중도문리의 김영경을 추축으로, 이종황의 집에서 친목계를 가장하여 모였는데, 강현면은 장세환을 추축으로 물치리는 김두영, 박제범, 김대선, 대포리는 박사집(朴士集), 부월리는 이종순(李鍾淳), 강선리는 전달원, 윤순범, 이종엽, 하북리는 이철우, 이형우, 중북리는 김창렬, 심한준, 간곡리는 추병원, 장산리는 양익환, 회룡리는 박봉래, 침교리는 김원식, 김진선, 적은리는 김철기, 김환기, 주청리는 김경도 등이 각자의 마을을 맡아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4월 4일 밤 이능렬은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李鍾國)의 집에서 태극기 2폭을 만들며, 내일 5일 강현면 물치리 장터에서 조선독립만세에 참가하기로 계획하고, 다음날 5일 정오경 물치장 터에서 도천면, 강현면의 군중 수백 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인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약 4km 거리인 도천면 대포 경찰주재소로 가서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부르니, 일본경찰들은 가축들을 모두 배에 태워 바다에 피신시키고, 우리는 갈 태니 제발 조용히 만세를 부르고 돌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그 후 군중들은 내일 양양경찰서에 가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하고 해산하였다.

양양 3.1만세운동 유적지 (양양읍 임천리(林泉里))

설초 이석범(雪樵·李錫範)선생은 조선 인종 원년(1545년)에 양양 인으로 처음 양양부사를 지낸 이춘령의 10대 손으로, 1859년 양양면 임천리 14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884년 초시에 합격하여 1899년에는 중추원의관으로 국정 심의에 참여하였으나,

그 후 일제의 잔악무도한 한일병합통치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1906년 양양군수 남궁 익과 함께 양양 현산학교와 도천면(현 속초시) 도문리에 쌍천서숙을 설립하여, 후진양성과 항일 애국정신 함양에 노력하였다.

1919년 초에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3월 1일 유림 10여명과 함께 한성의 고종 인산(因山)에 참례 후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와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지역유림과 양양보통학교의 신문화 세력, 양양감리교인, 농민 등을 설득하여, 4월 4일 양양장날을 기하여 3·1만세운동을 모의 계획한 마을이다.

이 마을 이교완(李敎完), 이교정(李敎貞), 이건충(李建忠), 이현철(李鉉喆), 김충진(金衝鎭) 등 몇 집에서 최인식(崔寅植), 최항식(崔亢植) 등 수십 명이 모여 수일간 대량의 태극기를 만들 던 중 4월 3일 군수 이동혁과 군속 심운택에게 탐지되어, 이석범을 비롯한 마을주민 22명이 체포되고 인쇄기 및 태극기 374매가 압수된 곳이다.



〈이석범 선생 생가 터〉

양양 3.1만세운동 유적지 (양양감리교회)



조화벽 지사

양양감리교회는 1901년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설립한 교회로, 항일운동에 앞장선 5대 김영학 목사, 8대 송정근 목사, 조화벽 성도 등 걸출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곳이다.

김영학 목사는 당시 양양지역의 모든 교회를 찾아가 설교하며 항일 사상을 심어주었으며, 만세운동 때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에게 입장 연설을 하다가 일경에게 잡혀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하였다.

그 후에도 '대한독립애국단'에서 활약하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0년에 국민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또한 조화벽(趙和璧)은 전도사 조영순의 외동딸로서 당시 개성 호수 돈여학교 유학 중에 개성 만세운동 결사대원으로 참여하였는데,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3월 중순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몰래 감추어 대포항으로 귀향, 양양교회 청년 김필선(金弼善)에게 전달하여 지역유림, 양양보통학교 동문, 농민들과 규합하여 4월 4일 양양 3·1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 후 1925년에는 유우석(柳禹錫·유관순의 오빠)과 결혼하였고, 1932년에는 가난하여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농촌의 학생을 위하여 양양교회에 정명학원을 개원하여 13년 동안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3·1운동 후 유우석의 가족들은 양양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으며, 고모인 유정숙은 양양면 사천리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에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양양 3.1만세운동 유적지 (양양장 터)

양양문화원향토사연구소 이철수 소장

1919년 4월 4일 양양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3·1만세운동은 이석범(李錫範)과 조화벽(趙和璧)이 몰래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단초가 되어, 지역유림과 신문화 세력, 종교인, 서민이 연합하여 양양면 남문리 35, 57번지 일원의 장마당에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은밀히 추진되었다. 뜻하지 않게 전날인 4월 3일 임천리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하던 중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체포



〈옛 양양 장날 모습〉

되고 태극기가 압수되었다. 그러나 4월 4일 장날에는 수천 군중이 장꾼을 가장하여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또한 장보러 나온 사람들과 합세하여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울분에 찬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만세군중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낮에는 겁이나 숨어있던 일본경찰이 날이 어두워지자 총을 쏘기 시작하여 더욱 격렬해 졌다.

이와같이 양양 3·1만세운동은 4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6개면 82개 동리의 남녀노소 거의 전군민이 참가하여, 12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 체포 142명 중 실형 73명, 태형은 수없이 많았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극렬하게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양양 3.1만세운동 유적지 (양양경찰서 터)



〈당시 만세운동 모습〉

1919년 4월 4일 양양장에 모였던 만세군중은 오후가 되자 경찰서(당시 군내면 문안리)에 수천 여명이 몰려가 전날 양양면 임천리에서 체포한 이석범(李錫範)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손양면 가평리 구장 함홍기(咸鴻基·당시 22세)는 경찰서장실로 뛰어 들어가 고교문차랑(高橋文次郎) 서장에게 화로(火爐)를 집어 던지려 할 때 옆에 있던 사범주임이 칼로 팔을 치고 허리를 찔러 죽였다.

이에 뒤따라 들어가 또다시 항의하던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權炳淵·당시 22

세)도 일본도에 목을 맞아 쓰러지자, 이에 군중들이 격분한 가운데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金鶴九)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로 뛰어 들어 가다가 일경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이때에 총에 맞은 부상자는 가평리의 신영묵(辛永默), 북평리의 용조원과 용천리의 노병우(盧炳禹·구장), 박의병(朴毅秉), 한원일(韓元一), 남순극(南淳極), 박경화(朴敬和), 최명옥(崔明玉), 김경숙(金敬淑), 이두하(李斗夏), 노병택(盧炳澤), 남성극(南成極)과 이흥달(李興達)은 턱뼈가 부러지는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곳이다.

양양 3.1만세운동 유적지 (성내리 곳집 터)

1919년 4월 4일 양양장날 만세운동에 배포할 태극기와 독립 선언서는 각 면별로 극비리에 구장집이나 서당에서 제작하기로 했다.

서면은 상평리의 박춘실(朴春實)이 임천리에서 만든 종이 태극기를 이교학에게 받아 집에서 수기로 만들었고,

현북면은 상광정리 김종대 집에서, 하광정리는 구장인 김진혁의 집에서, 강현면도 각 마을 책임자인 구장 집과 서당 훈도였던 적은리의 김철기(金鐵起) 집에서, 도천면은 중도문리 이종황의 집에서, 물치리는 김두영(金斗榮), 박제범(朴劑範), 김대선(金大先) 등이 태극기를 만들며 계획에 참가하였고,



〈당시 성내리 곳집〉

손양면에서는 가평리와 왕도리에서는 제작하였으나, 주리와 우암리 주민은 만들 시간이 없어 태극기 대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깃발을 들고 농약을 울리며 만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양양면은 조화벽이 독립선언서를 양양감리교인이며 면사무소 급사였던 김필선에게 전하여, 동료들과 면사무소의 등사기로 종지와 옥양묵으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는데, 이때 조화벽도 86매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임천리에서는 이석범 주도하에 이교완(李敎完), 이교정(李敎貞), 이건충(李建忠)등 몇 집에서 만들다 장날을 하루 앞둔 4월 3일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을 비롯한 마을주민이 체포되고 제작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급기야 피신하여 감곡리 이상온(李相璠) 집과 인적이 없는 곳을 찾아 성내리 47번지 뒷산에 있는 곳집(喪具保管所)과 거마리 김종대 집, 그리고 김중옥 집 뒷산 곳집에서 밤새 11,000여개의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의 사정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곳이다.



동해신묘(東海神廟)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이철수 소장

古來로부터 나약한 인간들은 神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이러한 만물에는 神이 함께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는 이러한 神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므로 평안을 위해 산천해악(山川海嶽)에 祭壇을 만들고 수시로 제사를 지내왔다.

여기 동해신묘(東海神廟)는 해신(海神)에게 국토 수호, 국태민안, 풍농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 4해(海)에 으뜸인 동해지신(東海之神)이 주석하여 珥이 내린 향(香)과 축(祝)으로 매년 새해 별제(別祭)와 2월과 8월에 상제(常祭)를 행하여 왔다.



〈동해신묘〉

동해신묘의 창건연대는 고문헌, 고지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려 제 6대 성종 10년(991년)에서 고려 현종 19년(1028년) 개성의 正東인 양양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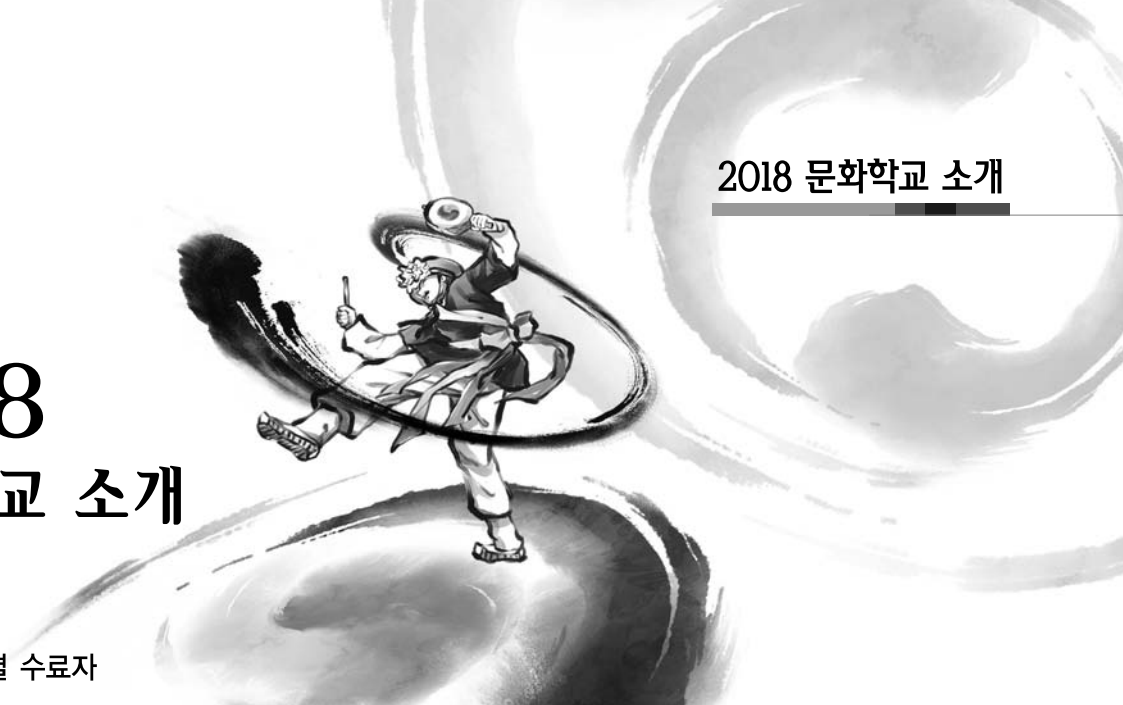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동해신묘는 강원도 양양 땅에 있으며 4해(海)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동해신의 신호(神號)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사 권준의 상소에 대해 전교(傳敎-임금의 명령)로 강원도 관찰사 남공철이 중수하고 동해신묘(東海神廟) 중수기사비(重修紀事碑)를 세웠다.

그런데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조선 순종 2년 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락이 훼손(毀撤-헐어서 치워버림) 한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93년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 6칸 1동이 건립되었고, 중수기사비를 복원하여 지방기념물 73호로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양양군에서 1월 1일 동해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2018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합계		232
한시교실	이종우	18
서예교실(한문)	함연호	24
서예교실(한글)	김광희	13
한국화교실	조정승	15
민요교실	이건남	20
통기타교실	강명근	16
사물놀이교실	홍이표	22
색소폰교실	이명재	22
난타교실	주동진	12
수채화교실	서순복	7
양양600합창단교실	김혜선	63

우수 수강생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한시교실	김덕주	사물놀이교실	이금순
서예교실(한문)	이광우	색소폰교실	정재란
서예교실(한글)	조덕희	난타교실	최기주
한국화교실	이승희	수채화교실	이현주
민요교실	송종석	양양600합창단교실	김남진
통기타교실	장동연		

2018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시

<수상>

- ❖ 오색야행 콘서트 한시백일장
 - 우수상 : 김경일, 김구래, 양동창
- ❖ 한시협회 전국한시 백일장
 - 장려상 : 김경일, 김주호, 추종삼, 최종학, 양동창, 김구래, 황재권, 박문희
- ❖ 제40회 양양문화제 기념 전국 한시 백일장
 - 가작 : 김구래, 김덕주, 김무풍, 김형래, 박문희
- ❖ 한시협회 풍아46호
 - 가작 : 추종삼
- ❖ 논개 전국 한시 백일장
 - 가작 : 추종삼



한문
서예

<수상>

- ❖ 대한민국 운곡서예문인화대전
 - 초대작가 출품 : 신동우, 이근천
 - 특선 : 윤지환, 김주용, 고순재, 이광우, 최용일, 이근천
- ❖ 강릉단오 서화대전
 - 초대작가 출품 : 신동우, 이근천
 - 특선 : 윤지환, 김주용, 고순재, 이광우, 최용일
- ❖ 제40회 양양문화제 영북지구 휘호대회
 - 대상 : 이광우



한문
서예

- 최우수상 : 윤지환
- 특선 : 고순재
- ❖ 2018 만해축전 제16회 남의침묵 서예대전
 - 초대작가 출품 : 이근천
 - 입선 : 신동우
- ❖ 강원서예대전
 - 입선 : 최용일



<전시>

- ❖ 제40회 양양문화제 여성회관 · 문화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수상>

-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 초대작가 인준 : 조영순
 - 우수상 : 조영순(삼체상)
 - 특선 : 조덕희
 - 입선 : 김영순
-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 입선 : 조영순, 노복현
- ❖ 교산 허균 400주년 기념 캘리그래피공모전
 - 입선 : 노복현
- ❖ 대한민국 운곡서예문인화대전
 - 초대작가전 출품 : 노복현, 이근천, 김영순, 조덕희, 이정희
 - 특우수상 : 김순자(삼체상)
 - 특선 : 장영랑
 - 입선 : 홍의태
- ❖ 남의침묵 서예대전
 - 초대작가전 출품 : 노복현, 조덕희, 김영순, 이근천
- ❖ 제40회 양양문화제 영북지구 휘호대회
 - 우수상 : 고민숙



<전시>

- ❖ 제40회 양양문화제 여성회관 · 문화원 수강생
 - 작품 전시회

한글
서예

한국화

<전시>

- ❖ 제40회 양양문화제 여성회관·문화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 ❖ 최종봉 : 개인전(10.1~10.31 속초문화회관)
- ❖ 윤정희 : 네 개의 감성이야기전(12.17~12.25 양양복지회관)



<수상>

- ❖ 양양예술제 노래자랑
 - 인기상 (단체)
- ❖ 제8회 동구리 전국민요 경창대회
 - 통합대상 : 송중석
- ❖ 평창 노산문화제 전국시조대회
 - 시조 갑부 장려상 : 정옥경, 정수미
 - 시조 을부 2등 : 정옥경
 - 시조 을부 장려상 : 정수미, 허옥환
- ❖ 평창 노산문화제 아리랑 대회
 - 은상 (단체)



<공연>

- ❖ 제11회 양양예술제
 - 지역출신 젊은 예술가 초청공연
- ❖ 제3회 전국한시백일장
- ❖ 제40회 양양문화제
- ❖ 여름밤의 문화공연
- ❖ 제6회 한국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 ❖ 2018 양양 연어축제
- ❖ 일본 룻카쇼촌 교류 방문 공연

- ❖ 제1회 함께서면 작은음악회
 - 2018 강원문화대축전
 - 향교 기로연
 - 국립협회 정기발표회

민요

통기타

<공연>

- ❖ 릴레이 자원봉사 공연(낙산요양원)
- ❖ 제40회 양양문화제
- ❖ 제22회 양양송이축제
- ❖ 고성 명태축제
- ❖ 2018 양양 연어축제
- ❖ 정다운마을 (이우름마당)



사물놀이

<수상>

- ❖ 제22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 장려상

<공연>

- ❖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축하행사
- ❖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장터공연 4회
- ❖ 양양 맛있는 야시장
- ❖ 제40회 양양문화제
- ❖ 제3회 전국한시백일장
- ❖ 여름밤의 문화공연
- ❖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 ❖ 제8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 ❖ 제22회 양양송이축제
- ❖ 2018 사례마을 단호박 잔치
- ❖ 2018 양양 연어축제
- ❖ 일본 룻카쇼촌 교류 방문 공연
- ❖ 제1회 함께 서면 작은음악회
- ❖ 제22회 양양군 노인의날 행사



색소폰

<공연>

- ❖ 수리 작은마을 음악회
- ❖ 제40회 양양문화제
- ❖ 제3회 전국한시백일장
- ❖ 여름밤의 문화공연
- ❖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 ❖ 2018 사례마을 단호박 잔치
- ❖ 제1회 함께 서면 작은음악회
- ❖ 양양읍민의날 공연



난타

<수상>

- ❖ 제22회 양양송이축제 슈퍼스타양양(2등)

<공연>

- ❖ 2018 신년인사회
- ❖ 제40회 양양문화제
- ❖ 2018 양양군 양성평등대회
- ❖ 여름밤의 문화공연
- ❖ 속초해변 가요열창 봉사회
- ❖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장터공연 4회
- ❖ 제28회 양양군 장애인의날 기념식
- ❖ 찾아가는 문화활동(정다운마을)
- ❖ 찾아가는 문화활동(현산요양원)
- ❖ 2018년 양양군 사회복지박람회



수채화



600
합창단

<공연>

- ❖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축하행사
- ❖ 제11회 양양예술제
 - 지역출신 젊은 예술가 초청공연
- ❖ 제40회 양양문화제
- ❖ 여름밤의 문화공연
- ❖ 2018 양양군 양성평등대회
- ❖ 양양 맛있는 야시장
- ❖ 한여름밤 축제
- ❖ 자원봉사 공연(성산사랑마을요양원)



2018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통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 “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짐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이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역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비고

- 수 강 생 : 19명
- 공연내역 : 2018. 1. 26(금) 재경 양양 중·고등학교 제20,21대 동문회장 이·취임식 초청공연
 2018. 6. 22(금) 제40회 양양문화제 전통시장 무대공연
 제3회 전국한시현장백일장 초청공연
 2018. 7. 28(토) 여름밤의 문화공연
 2018. 8. 3(금) 양양 맛있는 야시장 무대공연
 2018. 12. 14(금) 2018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공연



2018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학교별 등위	부문 산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초등학교	현서분교 3 김나영	현서분교 5 김 윤	양양초 4-3 최준영	양양초 4-2 이현	-	-	손양초 6 이상혁	한남초 3 박규민	양양초 4-3 김서현
								양양초 4-3 김다연	한남초 3 김서윤
중학교	강현중 3-1 최인정	-	-	강현중 3-1 김상연	강현중 1-1 최지혜	-	강현중 2 안지연	강현중 2 김유빈	강현중 2 이선희
								강현중 2 이지향	강현중 2 김재원



심사 소감

양양여자중학교 미술담당교사 김정옥

초등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에, 경로효친 포스터를 그려봄으로써 잠시나마 어른공경에 대한 동기부여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심성이 자라는 계기가 된 듯싶다.

초등학교 최우수상으로 '경로효친! 우리 모두의 의무' (이상혁, 손양초등 6) 작품에서 무거운 짐 대신 들기, 안마하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효과를 높여 경로효친이란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중등부

전체적인 작품에서 사회 전반적인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최고의 효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와 안부전화를 수시로 하는 것이 효도임을 강조하여 어른공경은 쉽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 최우수상으로 '효도는 실천이 중요' (안지연, 강현중2) 이 작품을 통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자세,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로효친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학생들이 작품 속에 경로효친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 있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아름다운 작품들처럼 경로효친이 우리의 삶 속에 향기롭게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경로효친 심사

양양여자중학교 문예담당교사 허자영

예고 없이 연락이 닿은 심사부탁에 어리둥절했지만, 봉투 속에 든 원고를 꺼내 보고는 저절로 눈이 갔습니다. 오랜 만에 보는 손 글씨가 정겹습니다. 쉽지 않은 얇은 원고지 칸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을 손들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이들의 글을 읽다보니, 얼마 전에 읽은 그림책 <<파랑오리(릴리아, 키티랜드)>>가 떠올랐습니다. 가을의 어느 날 파랑오리는 연못에서 울고 있는 아기 악어 소리를 듣고 다가가게 됩니다. 잠시 돌봐주려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아기 악어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파랑오리는 정성껏 아기 악어를 돌봅니다. 매일 씻기고 물을 무서워하는 악어에게 수영하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아기 악어는 어느새 엄마 오리보다 훌쩍 큰 든든한 어른 악어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파랑오리의 기억이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른 악어가 파랑오리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악어의 기억 속에 있는 파랑 오리 엄마가 돌봐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의 표지엔 파랑오리 배에 아기 악어가 안겨 있지만, 마지막엔 어른이 된 악어 배에 파랑오리가 안겨 있습니다. 단순한 색감과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은은하면서도 마음속에 큰 자국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 책을 보며 문득 ‘부모는 자식의 탄생을 기억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죽음을 기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생과 죽음의 긴 과정 속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연으로 닿아 무수히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도록 고맙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연의 끝자락에 파랑오리처럼 머릿속의 기억은 사라져가지만 행복했던 마음의 기억, 몸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의 연을 이어줄 것입니다.

포근하게 안기고 안아주는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기억, 몸의 기억이 되는 밑천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유년의 기억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지금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케 된 사실이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효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

강현중학교 3학년 1반
최인정

“아이고 저 그메가 내 고향이다. 세월리! 저 강에서 우리 아버지가 뱃놀이 하셨다. 아이구야... 그 많던 나무가 하나도 없구만...” 무릎을 치며 안타까워 하시던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이다. 할아버지는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시다. 2001년 칠순잔치를 대신하여 솔봉호를 타고 금강산에 가서서 멀리서나마 고향을 보고 눈물지으며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2007년 12월 25일에 떠나면 이별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요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통일의 기운이 느껴지는 소식을 접할때면 저는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셨던 할아버지는 미소로 모든 감정을 대신 하셨다 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차남이신데 할아버지는 늘 아빠를 든든해 하셨고,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흔히 말하는 효자아들이십니다. 속초와 양양 떨어져 사는데도 항상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비러가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펴보십니다. 말투는 통명스럽고 딱딱하지만 늘 두분 걱정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다섯 살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아빠는 부지런히 채우려고 애쓰십니다.

아빠도 어느덧 오십이 넘어 귀밑머리가 하얗고 이제는 염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무척 기대하고 설레어 하실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전에 멀리서나마 바라보던 고향땅을 통일이 되어 가 볼 수 있으셨다면 여한이 없으셨겠지요? 할아버지를 그리워 하면서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빠가 가없습니다. 아빠는 성품이 할아버지와 닮았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시고 잘 웃으시고 주변을 세심하게 돌아보아 다른사람 불편함 없게 조용히 일을 처리 하십니다. 아빠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텐데도 그냥 참고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아빠가 걱정이 됩니다. 화가 나면 표현도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풀기도 해야하는데 그냥 참는 아빠가 안쓰러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쓰러지실까봐 무섭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저를 낳은 아빠는 저와 동

생이 많이 걱정 되실 것 같습니다. 큰딸인 제가 이제 중학생이니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이제 아빠는 5년후 정년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미래가 걱정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빠 저희 걱정마세요.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아빠 걱정 안하시게 잘할게요. 아빠는 건강 챙기시고 통일이 되는날 할아버지 대신해서 우리 손 잡고 할아버지 고향에 같이 가요. 그리고 힘내세요. 무거운 어깨 이젠 조금 가벼워 지셨으면 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셨던 정성 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잘할게요.”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 너무 사랑하신거 아시죠? 그곳에서 미소로 아빠를 지켜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날 할아버지 고향에 꼭 가서 할아버지 대신 소원 이루어드릴게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3학년
김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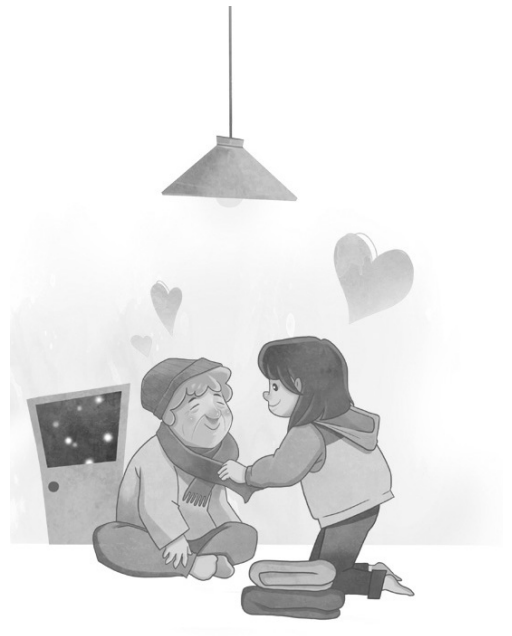
원래 우리 집은 친척을 빼면 4명뿐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민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민박을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고 내동생도 태어나서 집이 딱 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6명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남동생과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봄이 되면 항상 하는 게 우리 집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여름이면 물놀이 하고 가을이면 밖에서 뛰어놀고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놀아서 나는 나는 너무 너무 행복하다. 또 어떨 때는 내 남동생 영호랑 블록으로 집을 지으며 놀고 다른 놀이도 많이 많이 놀고 놀고 또 논다. 집에서는 어른들은 놀아주시는 건데 나는 말썽만 피운다. 앞으로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동생도 많이 많이 놀아줄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강현중학교 3학년 1반
김상연

여름땀별 밭에서 일하시고
명절 되면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할머니
자식들이 용돈을 주어도
손자들 주기 바쁜 할머니
자식, 손주 걱정되어서
매일 전화하는 할머니
자식, 손주 걱정만 하시는
할머니에게
한시라도 빠르게 효도하자



주름

양양초등학교 4학년 2반
이현

아아!
아빠 잘못했어요

너 때문에
아빠 주름이
늘어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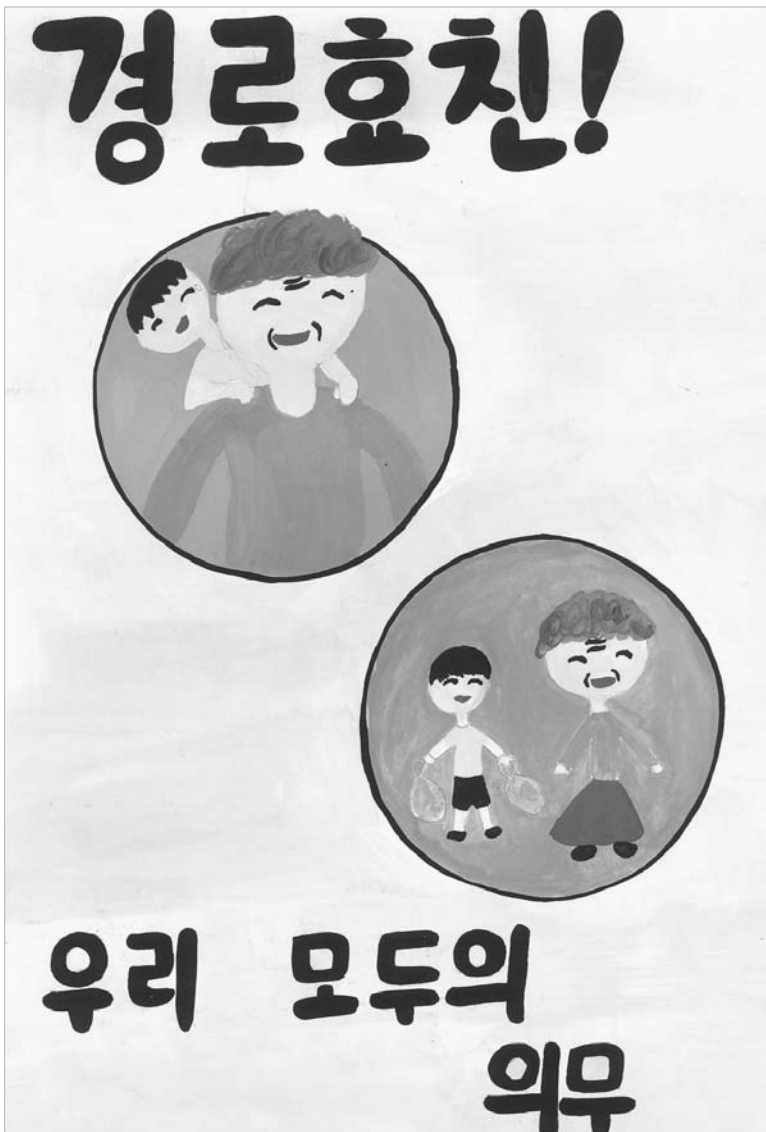
그럼 아빠는
할머니 말
잘 들었어?

당연하지
너보단 잘 들었어

강현중학교 2학년
안지연



손양초등학교 6학년
이상혁



설악은 양양의 진산(鎭山)으로 신라 때부터 소사(小祀)로 봉행.

설악산의 유래를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주(註)기록을 보면 설악산(雪嶽山)은 익령현(翼嶺縣, 양양군)을 지키고 보호하는 진산(鎭山)이라 하였다. 제사(祭祀)는 천하명산대천(天下名山大川)에 대·중·소제(大中小祭)를 지냈는데 설악을 영산(靈山)으로 여겨 소사(小祀)로 지내는 지역이라고 했고, 1872년 지방지도(양양도호부에서 그린 지도)에 설악산이라 표기 되어있다. 2013년 3월 18일 강원도에 지번변경승인을 거쳐 대청봉을 서면 오색리 산 1번지로 확정했다.



「세종실록지리지」양양도호부편에 “명산(名山)은 설악(雪嶽)이다. 부(府)서쪽에 있는데, 신라 때 소사(小祀)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신 허목(許穆)은 한계산(寒溪山) 동쪽이 설악산 이라했다. 설악이란 이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중추시설지하이소고명)중추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는다.” 하여 설악이라 이름 하였다. 조선 말 여류시인 김금원(金錦園)은 「호동서낙기(湖東西洛記)」에 “石白如雪故名雪岳(석백여설고명설악) 암석이 눈같이 희다 하여 옛적부터 설악이다.”라 했다.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성해응(成海應)이 편찬한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에 설악산에 관한 기록 가운데 “설악산은 눈같이 교결(皎潔)하여 설악산이라 칭한다.”라 했고,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 청봉은 멀리서 보면 아

특하게 청색(靑色)으로 보인다하여 이름 했다고 한다.

추강 남효온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서두에 소솔령(所率嶺, 오색령)에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 구나”라 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노산문선(鷺山文選)』의 「설악행각(雪嶽行脚)」편에서, 상청봉(上靑峰;대청봉)정상에 돌담을 두르고 기와를 덮은 조그마한 제단이 있고, 단상의 위패에는 雪岳上峰國司大王佛神之位(설악상봉국사대왕불신지위)라 썼다.

왼쪽에 작은 글로 八道山中道神靈(팔도산신중도신령) 오른쪽에 雪岳山神靈(설악산신령)이라 써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



조선시대 설악산 관련 대표적인 시문(詩文)들

매월당 김시습의 시집(梅月堂詩集卷之四)의 [기산명(紀山名)]이란 시(詩)에 금강산, 오대산, 설악산, 백두산, 지리산을 비교하는 시를 남겼는데 매월당이 “설악엔 옥비녀가 펼쳐 있구나.”라고 읊은 것은 명산 중에 설악산이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다.

紀山名(기산명)

雨洗瘦皆骨(우세수개골) 비가 씻어내니 파리한 개골(皆骨)이요.
煙收露五臺(연수로오대) 안개가 걷히니 오대(五臺)가 드러나네.
香峯桂子落(향봉계자락) 향봉(香峯)엔 개수나무 씨가 떨어지고
雪嶽玉簪開(설악옥잠개) 설악(雪嶽)엔 옥비녀가 펼쳐 있구나.
長白遙兼聳(장백요겸용) 장백(長白)은 멀리 솟아 있고
頭流壯且魁(두류장차괴) 두류(頭流)는 씩씩하고 우렁차구나.
名山窮眼界(명산궁안계) 명산(名山)에 시야가 다하였으니
不必往蓬萊(불필왕봉래) 봉래(蓬萊)까지 갈 필요 없구나.

조선시대 설악유산기(雪嶽遊山記)를 쓴 양양부사는 이해조(1709, 비선대), 유경시(1728, 유금강산록), 문익성(1757, 유한계록), 정범조(1779, 설악기), 김몽화(1787, 유설악록) 등 모두 5분이다. 특히 김몽화(金夢華) 양양군수는 관동방백(도지사) 김재찬(金載瓚)과 인제군수 오원모(吳遠謨)와 함께 정미년(1787) 9월 3일 설악산을 유람하고 적은 기행문인 「유설악록(遊雪嶽錄)」의 말미에 “雪嶽主人記(설악주인기)”라고 기록함으로써 설악산의 주인은 양양군(襄陽郡)임을 당당히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

오색석사(五色石寺)는 통일신라 때 무염선사가 12세에 출가한 곳이다!

오색석사에 대한 오해(誤解)와 진실(眞實)을 살펴보다.

세간(世間)에 오색석사는 가지산파(迦智山派)의 개산조(開山祖)인 도의국사(道義國師)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한다. 전설에는 오색석사 후원(後園)에 한 그루 나무에 다섯 가지 색의 꽃이 피었으므로 절 이름을 오색사라 하고, 이곳의 지명을 오색리라 하였으며 절 어귀에 있는 약수도 오색약수라 하였다고 한다.



오색석사

『현산지』에는 오색천 상류에 현곡사(玄谷寺)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사되었다. 이곳에 탑(塔)이 현존하여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추정 된다. 전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관장 정영호)는 누군가 이곳을 성국사(城國寺)라고 불렀다 하나 사찰규모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했으며, 이 절을 찾아가 고증(考證)을 한 뒤「오색석사(五色石寺)」로 사명(寺名)을 쓰도록 하였다고 양양군지(2010), 불교 편에 밝혔다.



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학자인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12세(868)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의 나이에 빈공과(賓貢科)에 장원으로 급제함] 선생이 지은『고운집(孤雲集)』에 의하면 설악산(雪嶽山)의 “오색석사는 오색돌이 있는 고로 이름 한 것이다.(五石寺有五色石故名也)”라 하였다.

오색석사는 창건 이후 신라시대의 선찰(禪刹)로 성주산파(聖住山派)의 개산조(開山祖)인 무염선사(無染禪師)가 선덕왕 5년(784)인 12세에 이절에서 출가하였다고『고운집(孤雲集)』과 『조당

집(祖堂集)』에 각각 기록하고 있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삼층석탑(보물 제497호)을 비롯하여 석사자(石獅子)와 대석(臺石)·기단석·탑재(塔材) 등이 산재되어 있고, 최근에 지은 인법당(因法堂) 1동이 있다.

이곳에서 출가하신 무염선사(無染禪師)는 어떤 분인가?

무염선사는 신라 애장왕 2년(801)에 출생하여 진성여왕 2년(888)에 입적한 당시 제일의 고승이었다. 성은 김씨, 호는 무량(無量), 또는 무주(無住)라고도 한다.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8대조이며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뛰어나 해동신동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이때에 이곳 법성선사(法性禪師)는 당나라에서 소승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으며 무염에게 한문과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당나라 유학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 후 무염은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려 했으나 도중 풍랑으로 배가 흑산도에 기착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헌덕왕 13년(821)에 다시 정조사(正朝使)를 따라 당나라에 가서 성남산(城南山) 지상사(至相寺)의 화엄강석(華嚴講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때 당에서는 이미 선종(禪宗)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무염도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을 찾아가서 선법을 문의하였다.

무염을 맞이하여 선법을 논한 뒤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와 같은 신라의 젊은이는 본적이 없다. 훗날 중국이 선풍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신라로 가서 선법(禪法)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무염은 마곡산의 보철(麻谷山寶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 법맥을 이어받고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독한 사람,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이렇듯 10여 년간 보살행을 실천하니 그의 이름은 당나라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무염을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렀다고 한다.

신라 문성왕 7년(845)에 귀국하였는데 이때에 왕자가 성주사에 머무르기를 간청하였다. 이후 무염은 성주사에 주석하면서 이 절을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근본도량으로 삼아 40여 년간 교화하였다. 이 같이 최고의 고승인 무염이 출가한 역사적인 사찰이 양양의 오색석사(五色石寺)이다.



복원기념비



불당



입구 돌계단

조선시대 양양부 상운도 찰방(祥雲道察訪)은 동북방면 교통중심기관으로 15개 속역을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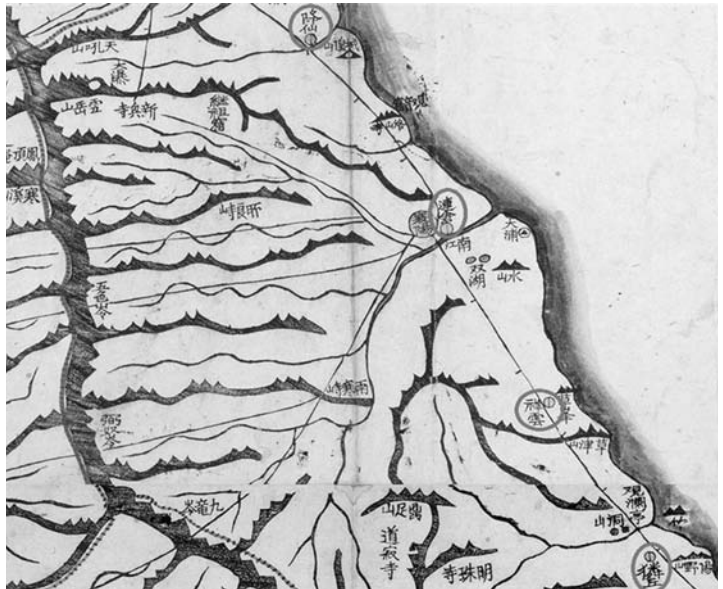
고문헌을 통한 상운도 위상(祥雲道位相)을 알아보다.

상운도(祥雲道)는 고려시대에 명주도(溟州道)의 관할이었으나, 조선전기 세종 연간에는 대창도(大昌道)에 소속되었다. 이후 세조 8년(1462)에 상운도로 독립되어 동북 방면으로 오가는 16개의 속역(屬驛) 중 상운역을 본역(本驛)으로 하여 양양(襄陽)-간성(杆城)-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의 교통로를 관할하는 역도 체제(驛道體制)로써 역승(驛丞)이 관할하다가, 중종 30년(1535) 이후에는 찰방(察訪)이 파견되어 역무를 관장하였다.

역(驛)은 역관(驛館)·역참(驛站)·우역(郵驛)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찰방의 역무(驛務)는 주로 중앙과 지방관아 사이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수물자를 운송하며 사신왕래에 따른 숙박편의 등을 제공하는 한편 교통로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역은 대략 30리마다 설치되어 역마(驛馬)와 숙박시설(宿泊施設)을 구비하고 출장관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 하였는데, 반드시 징포로 마패(馬牌)를 제시하여야한다. 그리고 일반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의 요지 또는 인가가 적은 곳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원(院)을 설치했는데, 다수 서민들은 사사로이 운영하는 주막(酒幕)을 이용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 역원조(驛院條)에 “상운역(祥雲驛)은 부 남쪽 25리에 있다. 본도(本道)를 잇는 속역(屬驛)이 15인데, 연창(連倉)、오색(五色)、강선(降仙)、인구(麟丘)、죽포(竹苞)、청간(淸澗)、운근



양양부 소재 4개역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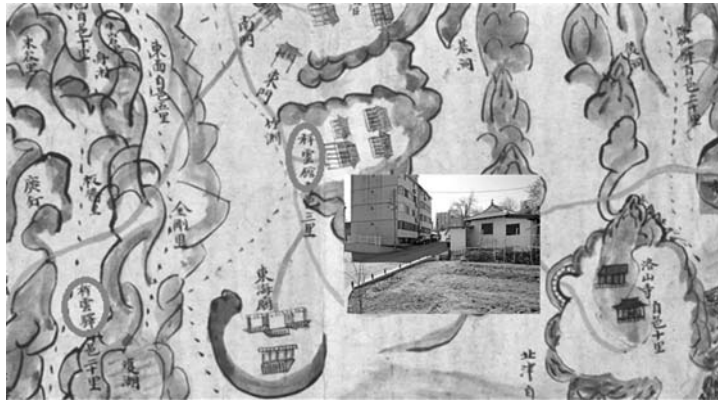
(雲根)·명파(明波)·대강(大康)·고잠(高岑)·양진(養珍)·조진(朝珍)·등로(登路)·거풍(巨豐)·정덕(貞德)이다. 승(丞) 1인이 있다.”고 했다. 그 후 오색역(五色驛)은 미시파령(彌時坡嶺)의 길이 열리면서 폐쇄하고 간성군 원암역(元岩驛)으로 옮겼지만 상운도 속역이었다.

양양부 소재 역원(驛院)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다.

『여지도서』와『관동읍지』에 역이 소재한 마을의 이름은 ‘상운역리·연창역리·인구역리’라 하였는데 강선역리는 없고 ‘강선역’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상운도(祥雲道)에는 역승(驛丞)의 근무처인 상운관(祥雲館)이 있었는데, 현종 12년(1671년)에 역승 송기태(宋基泰, 의암 송시열의 양자)가 길지인 연창역리로 역관을 옮기고 상운역화풍관(祥雲驛和風館)이라 편액(扁額)하였다. 그 후 2회에 걸쳐 이전하였는데, 경종 3년(1723)에 찰방 엄한중(嚴漢重)이 관우(館宇)를 옮기고 당명(堂名)을 홀운당(靄雲堂)으로, 1824년에는 찰방 박종언(朴宗彦)이 다시 짓고 와선당(臥仙堂)이라 이름하고 외청사(外廳事)로 하였다.

강선역(降仙驛) 관문에서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 2필, 복마 4필, 역리 192명, 역노 7명, 역비 8명이다. 연창역(連倉驛) 관문에서 동쪽 5리 거리에 있으며, 찰방(察訪)의 우관(郵館)이 있는데, 대마 3필, 복마 8필, 역리 270명, 역노 130명, 역비 70명이다. 상운역(祥雲驛) 관문에서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3필(匹), 복마(卜馬) 8필(匹), 역리(驛吏) 154명, 역노(驛奴) 30명, 역비(驛婢) 29명이다. 인구역(麟丘驛) 관문에서 남쪽 50리 거리에 있다. 대마 2필, 복마 3필, 역리 70명, 역노 81명, 역비 61명이다.



양양면 연창리의 상운관 위치와 상운관 터



강선역 터

양양부 역(驛)에는 시인묵객들이 남긴 시문(詩文)이 있다.

이 지역 역(驛)에는 많은 관리와 시인묵객들이 글을 남겼는데 대표적 인물들이 추강 남효온·희암 채팽윤·우암 송시열·삼연 김창흡·해좌 정범조 등이며 35편의 시문이 현존한다. 선조의 셋째 서녀(庶女) 정숙옹주(貞淑翁主)의 남편 낙전당 신익성(樂全堂申翊聖)이 남긴 상운역 시 한편을 소개한다.

祥雲驛畔萬株松/상운역반만주송/상운역 주변의 만 그루 소나무
 松外滄溟浪作峯/송외창명랑작봉/소나무 밖 큰 바다 파도 산을 이루네
 醉倚松根明月夜/취의송근명월야/취해 소나무 뿌리에 기대인 밝은 달 밤
 蓬萊笙鶴尙相逢/봉래생학당상봉/봉래산 학 탄 신선 행여 만나려나.

이후 고종 33년(1896) 1월 18일 칙령 제9호 “각 역의 찰방과 역속의 폐지에 관한 건”에 따라 모두 철폐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마패



상운역 터



연창역 터

양양해변(襄陽海邊)에 조선시대 봉수대(烽燧臺)는 4곳이다.

봉수제의 시원(烽燧制始源)을 알아보다.

봉수제의 유래는 중국의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 이미 상당히 정비된 봉수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있어온 것으로 짐작되나 확실한 것은 고려 의종 31년(1149)부터이다. 고려이후 조선 전기의 봉수는 봉화(烽火)라고도 하는데, 대략 수 십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후망(候望)의 요지가 되는 곳에 연대(煙臺)를 축조하여,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煙氣)로 변경(邊境)의 급보(急報)를 조정(朝廷)에 전달하는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통신수단(通信手段)이다.

세종은 집권초기부터 중국 및 고려시대 때 운영되었던 봉수제도를 참작하여 각 도의 망보기 좋은 산봉우리에 연대(煙臺) 또는 봉수대를 높이 쌓고 근처에 사는 백성 10여 명을 모집하여 봉졸(烽卒)로 삼아 매번 3인 1조로 편성하여 병기를 가지고 항상 그 위에서 주야로 정찰하며 5일 만에 교대하게 하고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보고토록 하였다.

봉수는 경봉수(京烽燧)·연변봉수(沿邊烽燧)·내지봉수(內地烽燧) 등 3종류가 있었는데, 경봉수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봉수로서 서울 목멱산(木覓山, 남산)에 위치하여 목멱산봉수 또는 남산봉수라고도 불렸다. 연변봉수는 해륙(海陸)변경의 제일선에 설치되었고,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로서 전국 어디서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각 경로를 통해 서울 남산에 약 12시간이면 도착 조정에 전달되는데, 강원도는 제1로로 함경도 경흥→강원도→경기도→양주 아차산봉수로 전달된다.



수산 봉수대 터



덕산(대포 의웅치)

양양해변의 봉수대(烽燧臺)의 운영체제와 폐지는?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 기록에 봉화가 4곳이니, 수산(水山)이 부(府) 동쪽에 있고,【남쪽으로 임내 동산의 광정(廣汀)에, 북쪽으로 부(府) 덕산(외옹치)에 응한다.】덕산(德山)【북쪽으로 간성 죽도(竹島)에 응한다.】양야산(陽也山)이 동산현 남쪽에 있으며,【남쪽으로 연곡 주을문에, 북쪽으로 광정에 응한다.】광정(廣汀)이 동산현 북쪽에 있다.【남쪽으로 양야산에, 북쪽으로 덕산에 응한다.】이로보아 당시는 동산현이 존재하였다.

봉수의 신호방식은 평상시(平常時)는 1회를, 왜적이 해상에 나타나면 2회, 해안에 가까이 오면 3회, 우리 병선과 접전 시에는 4회, 왜적이 상륙할 때는 5회를 올렸다. 만약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안개, 구름, 비, 바람 등으로 봉수에 의해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봉수대는 포성(砲聲, 信砲, 發火 등)과 각성(角聲, 角吹)으로 주위의 주민과 수비 군인에게 급보를 알리고,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가서 알리기도 하였다.

봉수는 중앙에서는 병조의 무비사(武備司)가, 지방에서는 관찰사 또는 수령 등 모든 군사 책임자가 관장했다. 수령은 봉화군이나 오장의 근무 실태를 감독하여 이와 연대 책임을 지는 한편, 봉수대 시설의 이상 유무를 살펴 필요시 수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봉수 운용 실태는 수령의 공과(功過)에 직접 관련이 있었다.

봉수 무용론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한 달이 넘도록 알리지 않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끊어졌다. 이와 같이 국가 안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자 급기야 선조 38년(1605)에는 파발제(擺撥制)를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근대적인 통신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고종 32년(1895)에 봉수제를 완전 폐지하였다.



초진산(하조대) 봉수대 터



현남면 남애리



1750년대 해동지도

이해조 부사(李海朝府使)가 현산삼십경(峴山三十景)을 노래한 배경

이해조(李海朝) 그는 누구인가?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 숙종 7년(168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1694년 빙고별검(氷庫別檢)으로 지내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후, 1703년 3월 응교(應教)·수원부사·전라도 관찰사·대제학(大提學) 등을 두루 거쳤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고 특히 시문에 능(能)하여 삼연 김창흠(三淵 金昌翕) 선생으로부터 천재라는 격찬(激讚)을 받았다.

조선 숙종 35년(1709) 2월에 양양부사로 부임한 명암 이해조(鳴巖 李海朝)는 울곡 이이(栗谷 李珥) 선생이래 대학자로 영시암(永矢庵)에 은둔하고 있던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翕) 선생과 같이 양양의 경치 좋은 삼십경(三十景)을 두루 찾아 보고나서 느낌을 서로 주고받으며 오언율시(五言律詩)로 노래한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 일명 양양별곡(襄陽別曲)을 명암집(鳴巖集)에 남겨 오늘에 전하고 있다.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



영혈사(靈穴寺)

양양의 수려한 경관을 노래한 소회(所懷)는?



하조대(河趙臺)

이해조 부사는 현산삼십영 서문(序文)에서 양양의 수려한 경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도 산수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삼연 김창흠 선생과 화답(和答)한 시문을 기록으로 남겨 널리 알리고자 함이다.

“산과 물이 견줄 수 없이 진귀(珍貴)하게 서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내같은 재주로 전부를 충분히 꿰뚫어 알리기는 능력이 모자라나 비록 언덕과 골·물·돌 하나하나를 듣고 본 바가 있으나 오히려 어렵도다. 하물며

강과 산이 넓고 크며 큰 바다와 명산이 상치(相值)하여 매우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다. (중략) 옛 고을의 기록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 틈을 내어 망루와 사찰에서 적적하고 고요함 속에서도 시문을 지어 읊으며 다만 한 때 한지역의 경치만을 기록해서 일찍이 없던 것을 찾아내어 기록으로 밝히니 내 어찌 기쁜 일이 아니라. 이에 상고(上告)하여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는 바이다. 또 읊을 찾아 늙은이 가운데 현산삼십경의 시문을 짓고서 각기 짧은 글을 붙이고자 간략한 좋은 글을 요구하니, 삼연 김자익(三淵 金子益)이 응하여 화답하였노라.”(중략) “내가 돌아보니 글이 없어 사람을 만나나 산수를 설명할 수 없었는데 내가 산수를 찾아 대하였으니 곧 다행이로다. 잠시 읊기도 하고 글로 화답도 하다가 병풍에 모두 게재하였으니 장차는 이것에 의하여 밝혀 퍼질 것이다.”라 하였다.

현산삼십경은 어떤 곳이며 시사점(示唆點)은?

설악산(雪嶽山) · 남대천(南大川) · 낙산사(洛山寺) · 천후산(天吼山) · 의상대(義湘臺) · 관음굴(觀音窟) · 계조암(繼祖庵) · 비선대(飛仙臺) · 권금성(權金城) · 하조대(河趙臺) · 현산(峴山) · 의춘암(宜春巖) · 무산(巫山) · 녹문(鹿門) · 자지산(紫芝山) · 쌍호(雙湖) · 태평루(太平樓) · 동해신묘(東海神廟) · 죽도(竹島) · 청초호(靑草湖) · 상운정(祥雲亭) · 대제(大堤) · 봉정암(鳳頂庵) · 사림사(沙林寺) · 오색령(五色嶺) · 북진(北津) · 냉천(冷泉) · 김달동(黔達洞) · 남호당(納灑堂) · 영혈사(靈穴寺) 등 30곳이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금의 인제군 봉정암(鳳頂庵)과 오색령[五色嶺, 한계령]은 삼십경 시제(詩題)로 보아 당시는 양양 땅이었다.
- **둘째** 북진[北津, 전진2리]리 어민들은 어로작업(漁撈作業) 시 월척미만(越尺未滿) 물고기는 어족자원보호을 위해 방생했다.
- **셋째** 사림사(沙林寺)는 부(府) 서쪽에 있는 옛 절터라 했는데, 요즘 사학자들은 선림원지(禪林院址)라

격을 낮춰 부른다.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은 이해조의 대표적 한시로 양양 향토사료(鄉土史料)로 가치가 높다고 본다.



현남 죽도선구(竹島仙臼)



홍련암 관음굴(觀音窟)

국내 최초 校界(교계) 각자(刻字) 현북면 장리 연화동서 발견하다.

校界(교계) 각자(刻字)의 발견동기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 내 금표(禁標)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북면 장리 노루골길 소하천 상류지점인 달하치와 연화동 갈림길 냇가 반석(磐石)에서 글자를 발견하였다.

최초 발견과정은 양양향토사연구소 연구원이 2013년 8월 중순경 교계 암각문(岩刻文)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찾기 위해 장리 연화동(蓮花洞)에 거주하는 신성균(남 당시67세)댁을 방문하였다. 이 때 신성균은 예전에 그곳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촬영한 校界(교계)사진 한 장을 제공하면서 “현재는 바위에 새겨진 글자가 수해로 매몰 되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양양문화원과 향토사연구소 합동으로 발굴 작업에 임했는데, 당시 암각문(岩刻文) 상태는 연화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세월교(洗越橋) 가설공사와 그동안의 수해로 바위와 토석이 쌓여

이를 제거 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2013년 9월 3일 ‘校界’라는 글자를 찾아냈다.



현북면 장리 연화동

校界(교계) 각자(刻字) 의미(意味)는 무엇인가?

校界(교계) 각자의 사전적 의미는 교계(校界)라는 글자를 바위에 파서 새긴 것을 말한다. 라 했으나, 校界(교계)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각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마침내 유수대학교의 교수를 초청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교계(校界)와 금표(禁標)는 일정한 구역 안으로 함부로 드나들지 말 것을 알리는 표시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漢書)』성제기(成帝紀)에 이런 주석(註釋)이 있다. “이 校(교)라는 것은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를 말한다.”라 하였고,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

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교(校)와 교렵(校獵)에 관해 상세하게 당나라의 초기의 학자 안사고(顔師古)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유원(李裕元)의 문집 임하필기 전모편(林下筆記 典謨編) 변방의 방비를 보면 "신립장군(申砮將軍)이 평상시 철갑 기병 500여 명을 조련하여 교렵(校獵, 사냥)이란 이름으로 전투를 익히게 하였는데, 강가를 치달리고 민첩함과 빠르기가 마치 신과 같으니 호인(胡人)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하였다." 란 기록이 있다. 이로부터 교렵(校獵)은 사냥대회로 짐승을 일정한 곳에 몰아 놓고 무기를 사용하여 사냥을 하는 군사훈련이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권8 연졸 제2조에 의하면 "연졸(練卒)이라는 것은 무비(武備: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중요한 일로써 조연(操演: 훈련하다)과 교기[教旗: 중국 명나라의 병술가 모원의(茅元儀)는 평상시 조련하는 법으로 옛날의 교렵이 곧 이 뜻이다]하는 것이다."라 했다.

위를 종합할 때 이곳은 산악으로 지세가 작전하기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실전적용 훈련장으로 알맞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조련(調練)하던 교렵장(校獵場, 군사훈련장)도 노루가 많은 이 연화동 마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짐승을 잡는 사냥터 및 조련장(操鍊場)은 위험이 늘 상존하므로 이를 알려 사고예방차원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계곡이나 도로변에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바위에 校界(교계)를 새겼다고 보며, 그 어원(語源)은 교렵장 경계(校獵場境界)였는데 약칭으로 교(校)자와 계(界)자를 합성 校界(교계)로 표기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2016년에는 강원도향토문화 연구논문발표대회에서 ‘교계와 금표의 동질성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한바있으며 특히 이번 논문발표를 통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校界(교계) 각자(刻字)가 국내 최초로 양양에서 발견되었다는데 대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화동과 달하치 입구



교계 각자



교계 발굴 작업

양양지역 시장의 역사

시장(市場)이란 어떤 곳인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장터는 우리들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로 존재하여 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일반적 지식으로 시장(市場)은 생산자 소비자 및 상인 등이 모여 물자의 교환매매를 하는 일정한 장소를 장시(場市)·장(場)·장문(場門) 또는 시장(市場)·시상(市上)으로도 불렀다. 이에 대하여 상설의 상점은 시전(市塵)·시사(市肆)·전방(塵房)·전포(塵鋪) 또는 단순히 전(塵)이라 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 5의 각 전조(各塵條)에는 “행상이 모여서 교역하고는 물러가는 것을 장(場)이라고 이른다.”라 하였다.

양양지역 시장의 유래

양양지역의 시장(市場)에 대한 효시(嚆矢)는 지금으로부터 2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영조 46년(1770)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으로 한국의 문물제도를 분류·정리하여 편찬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후반 양양지역에는 다섯 곳, 일제강점기의 기록에 세 곳에 개시(開市)되어 모두 여덟 곳에서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양시장 신축(1960년대)



양양우시장(1960년대)



옛 양양시장

● 조선시대 시장-5개소

양양읍내시장(襄陽邑內市場)은 양양읍 남문리에 소재하며 매월 4, 9일(월6회)개시하였고, 물치시장(物湍市場)은 강현면 물치리에 소재하며, 매월 5, 10일(월6회) 개시하였다. 동산시장(洞山市場)은 현남면 시변리에 소재하며 매월4, 9일(월6회) 개시, 1909년부터 매월 5, 10일(월6회) 개시되었다. 부동시장(府東市場)은 손양면 수여리에 소재, 매월 3, 8일(월6회) 개시. 상운시장(祥雲市場)은 손양면 상운리 소재. 매월 5, 10일(월6회) 개시하였다.

● 일제시대 시장-3개소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의하면 기사문시장(其士門市場)은 현북면 기사문리에 소재하며, 1917년 매월 5, 10일(월6회)개시하였다. 경성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인구시장(仁邱市場)은 현남면 인구리에 소재하며 1937년부터 매월 5, 10일(월6회) 개시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 외 서면 서림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대영(87세 남)씨의 증언에 의하면 “서림시장(소규모 장터)은1936년경부터 장거리에 상점들이 10여 집 들어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난장형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말했다.

민족의 얼이 서린 양양장터에 새바람이 불다.

양양장터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4일 수천 명의 시위군중이 운집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전개해 강원도에서는 가장 치열한 곳으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적 항일운동을 전개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양양의 우시장은 강원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축산농가의 감소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6·25전쟁 이후 판잣집을 건축 시장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이를 철거하고 주민자력으로 신축 상가가 들어선 이후 2003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기존의 점포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한동안 우천 시 마다 질척했던 장거리가 아케이드 설치로 불편이 해소되었고, 그 외 주차장 추가확장 및 외곽도로 연결 사업 등 시장인프라사업들이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시장경제도 새 활로를 찾기 위해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최근에는 전국 최고 전통 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 양양시장 인근에 주민 복지와 경제 선순환(善循環)의 거점공간이 될 웰컴센터를 금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양양전통시장 이모저모

양양 성황제는 국행성황제(國行城隍祭)이다.

성황제의 유래

- 성황제는 서낭제라고도 불리며 그 유래를 고문헌을 상고하면 5세기경 후한서(後漢書) 반표열전(班彪列傳)에 기록이 있다.
- 우리나라에는 고려 성종 15년(996년)에 성황당 기록이 고려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 고려 고종 23년(1236년) 성황신에는 지역에 따라 작호(爵號)[國師·大皇·將軍·護國伯...]가 덧붙여졌었으나, 공민왕 17년(1370년) 각 지역의 주(州)·부(府)·현(縣)의 성황은 ○○주·부·현성황지신(某州·府·縣城隍之神)이라 고치도록 했다. [예: 양주성황지신(襄州城隍之神)]



성황사 전경

조선건국 후 성황제는 유교세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 태조 1년(1392년)의 사전(祀典)에 여러 주군(州郡)의 성황(城隍)은 나라의 제소(祭所)이니, 다만 ○○주(州), ○○군(郡) 성황(城隍)의 신(神)이라 일컫고, 위판(位板)을 설치하여,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매양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제물(祭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예제(禮制)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 태종 13년(1413) 사전 개정안에 각관(各官)의 성황지신(城隍之神) 작호를 혁거(革去)하고, 단지 ○○주



헌작례

(州)의 성황지신이라 하며 성황사 안에는 주신(主神) 1위(位)만을 남겨 두고 상설(像設)은 모두 다 철거(撤去)하라고 명시했다.

-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와 성종 5년(1474년)에 완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전거하여 성황제를 행한다.

이에 양양성황사의 제례는 국행성황제에 전거하여 신위판은 ‘양양성황지신(襄陽城隍之神)’ 이라야 하며 성황사 안에는 신위만을 모시고 일체의 상설(像設)은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양양성황사는 언제 어디에 설치되었을까?

고려 목종(穆宗) 10년(1007년)에 양양에 성을 쌓았는데 348칸이고 문(門)은 4개이다. 이 성은 양양의 현산 산등성에 쌓았으며 성안이 읍지가 되니, 성안 제일 높은 곳인 지금의 성황사 자리가 당초의 성황사 터였으리라 믿어진다.

오늘에 이르러 왜? 성황사 제례에 대하여 논쟁이 되는가?

이는 우리 양양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잡고 고려시대 이래 관주도의 고유전통 문화를 계승시키면서 오늘날 최첨단 과학문명과 접목시켜 약진양양의 건설과 군민의 대동화합을 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에 의하여 동해신묘와 같이 훼철시켰다.

다행히 6·25한국전쟁 후 우리 양양이 자유대한의 품에 안겨 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나, 일제에 강점당하면서부터 50년간 까맣게 잊혀졌던 양양의 성황제에 대하여, 복구당시 관에서 무관심한 틈을 타, 무속에 의해서 주민 주도의 민간성황제로 변형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 때문에 양양성황사의 성황제는 국가제사이므로 국행성황제(國行城隍祭)로 환원되어야 한다.

- 고려 말 안향(安珦)이 상주판관(尙州判官)이 되어 무녀에게 곤장을 치고 칼을 씌워 옥중에 가두어 놓자, 도리어 무녀들은 용서를 구하였고,
- 양양 조산리 강릉최씨의 중시조 최정립(崔挺立) 선생이 1599년 사천리 웅이동에 있었다는 요신(妖神)의 사당인 도적음사(道積淫祠)를 헐어버림으로써 미신의 허구를 일깨운 위인이 있었으며 이후 주민은 안녕을 기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



제례 장면

조선시대 양양부사 유자한의 상소문으로 본 강원도민의 生活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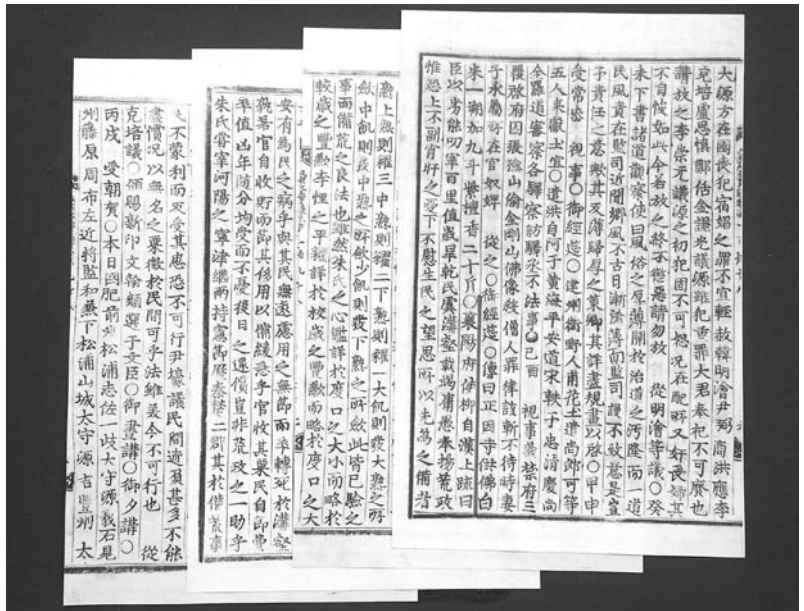
유자한부사(柳自漢府史)의 생애(生涯)

본관은 진주(晉州). 유광보(柳光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의(柳依), 아버지는 참판 유양식(柳陽植)이다. 세조 6년(1460) 평양별시문과(平壤別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464년 경기도경차관(京畿道敬差官)과 조정의 여러 요직을 거친 후 1486년 양양부사로 재임 시 환곡(還穀)에 따른 폐단을 상소하여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유자한 부사는 생육신(生六臣)의 한사람인 매월당김시습(梅月堂金時習)과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죽마고우로 양양부사로 재임 시 친필 서한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다.

백성의 사곡(私穀)을 관부(官府)에 간직하여 낭비 막기를 청하다.

성종 17년(1486) 12월 14일 4 번째 기사에 유자한 부사가 양양에 부임이후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신이 무능한 자질로써 외람되게 한 고을의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려 죽을 것을 근심하여 어리석은 힘을 다하여 흉년을 구제하는 일을 받들어 행하되, 위로는 전하의 부지런하고 근심하시는 마음에 부응(副應)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생민(生民)의 바라는 바를 위로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준비한 대책이 있었던 바, 감히 좁은 소견으로써 굵어 살피시기를 엿드려 바



조선왕조실록 성종 17년

랍니다.”

“국가에서는 조종(祖宗) 이래로 부터 의창(義倉)·군자창(軍資倉)·상평창(常平倉)을 두어서 흉년에 대비하는 법이 있으나 공사(公私)의 저축이 모두 적어서 창름[倉廩곡식 저장창고]의 이름만 있고 명년 봄에 종자와 양식의 수요를 일체 관대(官貸)에 의존하는 것이 상습(常習)이 되었으니 만일 적병의 경보(警報)나 수년의 재해[災]가 있으면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신은 그욕이 한심스러워합니다.” <.....중략>



조선왕조실록 성종 18년

유자한 부사는 중국의 목민심감(牧民心鑑)을 예로 들면서까지 호소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부 대신들은 “백성의 사곡(私穀)을 거두어서 관부(官府)에 간직하여 백성이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백성에게 유리할 듯하나, 곡식을 내고들일 때에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결단코 행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중론을 모았다.

그러나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은 “이 법이 편리하여 유익할 듯합니다. 청컨대 우선 한 고을만 시험하여 그 편부(便否)를 시험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으며,

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 또한 “이 계획은 옛사람이 시행하여 효과가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고금의 형편이 달라서 시행하는 데 그 적당한 길을 얻지 못하면 마침내 백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유자한(柳自漢)으로 하여금 백성이 원하는가를 묻게 하여 우선 양양(襄陽) 한 고을만 시험하여 편부(便否)를 보도록 하소서.” 하자 임금께서는 우의정 이극배의 의논에 따름으로서 유자한 양양부사의 상소가 관철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후세(後世)에 전하는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백성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강무(講武) 연기를 상서라다.

다음해인 성종 18년(1487) 9월 11일 2번째로 강원도민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상소하였다.

“강원도(江原道)는 다른 도와 달라서 서쪽으로는 대령(大嶺)에 의거하고 동쪽으로는 창해(滄海)에서 그쳤으며, 영서(嶺西)는 서리와 눈이 많고 영동(嶺東)은 바람과 비가 많은데다가 땅에 돌이 많아서 곡식이 번성하지 못하여, 풍년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오히려 지축(旨蓄):겨울에 먹을 것으로 저장하는 시래기 따위) 과 감자나 밤으로 이어가고서야 겨우 한 해를 넘길 수 있으므로, 민간에서 도토리 수십 석(石)을 저장한 자를 부잣집이라 합니다.”

“농부를 먹이는 것은 도토리가 아니면 충족할 길이 없고, 백성이 도토리를 줍는 것은 다만 9월에서 10월 사이일 뿐인데, 강무(講武)로 인한 순행[巡幸: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던 일] 으로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느 겨를에 도토리를 주워서 내년의 생계를 꾸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강무(講武)는 우선 10월 보름 이후가 되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그 편익한 때를 얻지 못하거든 내년 봄에 행하는 사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 하였는데 임금께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와 병조(兵曹)의 의견을 듣도록 명하여 의견을 들었으나 대신들이 강무연기를 반대하였다.

반대이유는 “강원도의 백성이 도토리와 밤을 식량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유자한(柳自漢)이 아된 것과 같으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오래 강무(講武)를 폐지하였는데 올해에는 곡식이 조금 잘 되었고, 기한을 정하여 군사를 징발해서 꼴을 베고 행궁(行宮)을 영선(營繕)하는 일을 이미 하였으니, 밤을 줍는 데에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중략>

“강무는 나라의 큰일이고, 군사를 징발하는 기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앞당기거나 물릴 수 없겠습니다. 봄에는 바로 농사철에 해당하므로, 더욱이 거행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전교(傳敎)하기를, “유자한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라 하였다.

유자한 양양부사는 2회에 걸쳐 상소문을 올려 백성들의 고충(苦衷)을 덜어주려 애를 썼지만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강원도민의 찌든 생활상의 단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향토사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본다.

이밖에 성종 18년(1487) 9월 19일 첫 번째 기사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노공유(盧公裕)가 아뢰기를 “강원도의 백성은 오로지 도토리·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만약 강무(講武) 때문에 그것을 주울 때를 한번 놓치게 한다면 민생(民生)이 염려스럽습니다. 요즈음 유자한(柳自漢)의 상서(上書)에도 이것을 언급하였으니, 강무를 멈출 수 없다면 일수(日數)를 줄이소서.” 하니, 임금께서 전교하기를 강무는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들어주지 않았으며,

성종 18년(1487) 9월 20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인종(柳麟種)이 아뢰기를 “양양 부사(襄陽府使) 유자한(柳自漢)이 본도(本道)에 흉년이 들었다 하여 강무(講武)를 멈출 것을 청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도 강무는 중대한 일이므로 폐지할 수는 없겠으나, 일수(日數)가 너무 많으니 적당히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강무는 큰일이니, 한 사람의 말에 따라 쉽사리 앞당기거나 물릴 수 없다. 하였다.

이처럼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관(諫官)들까지 유자한 부사와 같은 뜻으로 주청(奏請)을 올린 사례가 있어 시사(時事)하는바가 크다.

강무(講武) → 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와 백성들을 모아 일정한 곳에서 함께 사냥하며 무예를 닦던 행사. 서울에서는 사계절의 끝 무렵에, 지방에서는 봄·가을 두 계절에 이루어졌는데, 수렵하여 잡은 동물로 종묘 사직과 지방 사직에 제사하였다.

현북면 법수치리에서 매월당 김시습을 만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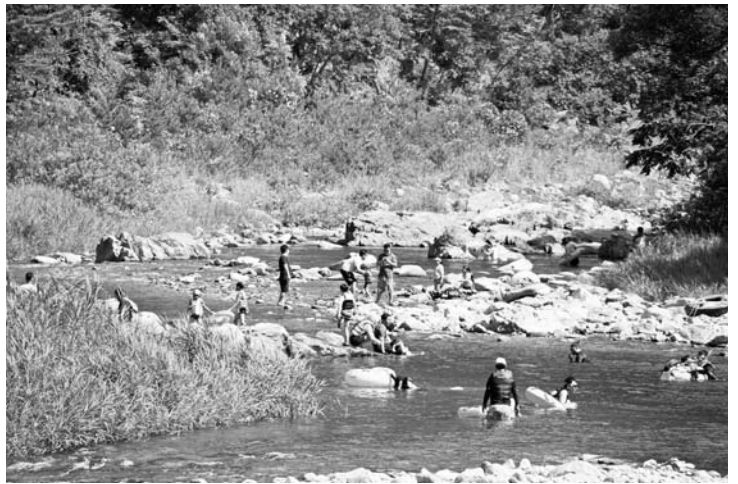
법수치리(法水峙里)는 마치 佛家の 法水를 색출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김시습이 이곳에 머문 이유도 예부터 山水가 수려하고 地勢가 깊어 암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양양의 지명 유래에 의하면 마을 입구 강가에 운문암(雲門岩)이라고 암각 된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부근에 있던 庵子 이름을 김시습이 지었다고 하니 이 마을과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김시습은 과연 법수치리 어느 곳에 머물렀을까?

마을 입구 진흙둔지 건너편 바디 재에 옛날에 암자가 있어 절터 골이라 부르며, 참 진흙이 많다는 토골(土洞)에 탁인현(卓仁憲) 효자각 부근에는 지금도 용화사(龍華寺)라는 절이 있다.

토골을 지나 개잔이물내치기와 진흙둔지, 본동, 미능골을 지나면 길가에 쌍덕이라는 화전민이 살았다는 쌍덕폭포가 있는데 지금은 대승폭포라고 부른다. 김시습이 세조의 등극을 배타하여 세상을 주유할 때, 이 폭포 높이가 30m나 되었고 운치가 좋아 수일간 머물렀다고 전한다.



법수치리 계곡

대승폭포를 지나 검달골(黔達谷) 굴아우 계곡 언덕에 전에 안현준 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터가 김시습이 머물던 집터라는 설도 있고, 팔밭목이(豆田項)를 지나 서쪽으로 약 4km쯤 廣佛里에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법수치리에는 庵子와 관련된 지명, 옛 절터와 집터 등 김시습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어느 곳에서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성전리 망월산에 고려 목종 12년에 창건한 명찰 명주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을 여러 곳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유추해 본다.

매월당 김시습의 생애

김시습(金時習 · 1435~1493)의 본관은 강릉(江陵), 호는 매월당(梅月堂),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한양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나 3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5세 때 이미 시를 지어 신동(神童)으로 전한다. 세종대왕이 ‘오세(五歲)’라는 별호를 내렸다.

그러나 21세(1455)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킨 후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찬탈을 하자, 3일간 통곡을 하고 보던 책들을 모두 불사른 뒤 승려가 되어 유랑하였다. 이때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 사육신의 시신을 바람에 담아 노량진에 임시 매장한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31세(1465 · 세조 11)에 경주 금오산(金鰲山)에 입산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만복사저포기』 등 5편이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있고, 수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遊金鰲錄)』에 남겼다.

47세(1481년 · 성종 12)에는 다시 安 氏라는 아내를 맞고 환속하였는데, 이듬해 예상치 않던 ‘폐비운씨사건(廢妃尹氏事件)’이 벌어지자 또다시 승려가 되어 관동지방을 찾게 되었는데, 이 무렵 양양부사 유자한(柳自漢 · 1486)과 교분이 깊어, 법수치리 검달골(黔達谷)과 설악산에 머물며 자연을 벗 삼아 쓴 100여 편의 시가 『관동일록(關東日錄)』에 있다.



김시습이 머물던 집터와 효자각

명암 이해조의 『명암집』 6권, 峴山三十詠에 양양에 은거(隱居)한 기록

양양부사 이해조(1709 · 숙종 35)는 재임 시 양양의 아름다운 명소 30곳을 엄선하여 ‘현산30경’이라는 시문을 남겼는데, 그중 제23경, 24경, 28경에 양양에 은거한 기록이 있다.

제23景 봉정암(설악산) 편 서문에 “봉정(峯頂) 아래 이 십리 정도에 십이폭포가 있고, 서쪽엔 梅月堂 金時習이 살던 옛터가 있다.”라고 하였고, 제24景 沙林寺(선림원지) 편에 “절 앞의 돌비에는 곧 『梅月堂集』에 王羲之의 글자체로 홍각선사(弘覺禪師)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했고, <.....중략>

제28景 검달동(黔達洞) 편에 黔達洞 在府南八十里山谷間絕險處 疊嶂環擁 人迹罕到 卽梅月堂舊隱處 遺址

尙存 俗傳五歲童子基云 “김달동은 부의 남쪽 팔십 리 아주 험준한 산골에 있다. 첩첩한 산봉우리가 빙 둘러 안고 있어 인적은 드물다. 즉 매월당 김시습이 옛날 수년간 수학하며 은거하던 곳으로 살던 터는 아직 남아 있다. 속세에 전하기로는 오세의 어린 동자가 살던 터라 한다.”라고 기록했다.

『매월당집·술곡집』에 양양부사 유자한과의 友情을 보면

- 양양부사 유자한의 재임기간에 ‘상류양양진정서(上柳襄陽陳情書)’ 등 여섯 편의 書信文이 실려 있다.
- 유자한 부사가 梅月堂의 後嗣를 걱정하여 上京 時 양양의 官妓 가운데 소동라(所冬羅)를 同行 시켰다. 友情에 못 이겨 데리고 가기는 했으나 얼마 간 있다가 노자(路資)를 주어 양양으로 되 내려 보냈다.
- 유자한이 양양부사로 있으면서 공을 예로 대접하고, 다시 세속 살림을 회복하기를 권하니, 공이 편지로 사절하여 말하기를 “장차 긴 삼을 만들어서 복령(茯苓)과 백출(白朮)을 캐고, 一萬 나무에 서리가 맺힐 때에 仲由(孔子的 제자 子路)의 무명옷을 기워 입고, 一千산에 눈이 쌓일 때 王恭(晉의 前將軍)의 학창의(鶴氅衣·학의 털로 만든 갑옷)를 펼쳐입으려 한다. 낙백(落魄·뜻을 이루지 못함)하여 세속에 사는 것보다는 소요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천년 뒤에 나의 본 마음을 아는 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翻譯: 郷土史研究所 又泉 李鍾菴>



대승폭포와 운문암

매월당 김시습은 단종이 폐위되자, 淸節之士로 절의를 몸소 실천하면서 양양의 범수치리와 설악산에서 초연히 유랑하며 오랫동안 물렀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낙산사에 얽힌 조신 스님의 꿈

삼국유사 :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관음(觀音), 정취(正趣), 조신(調信)

『삼국유사』에 전하는 「조신의 꿈」이야기.

이 설화는 낙산사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강조하고 불교의 무상관(無常觀)을 구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화를 삼국유사에 수록한 일연 스님이 감동했듯이 훗날 많은 문학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춘원 이광수도 영향을 받아 『꿈』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으며, 또 영화와 만화로도 재창작되었다. 일연 스님은 14세에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陳田寺)에 들어와 대웅(大雄)의 제자가 되어 수계(授戒)를 받은 스님이다.

조신 스님 짝사랑에 빠지다.

조신은 신라의 스님으로 신라 세규사(世達寺)가 가지고 있는 농장 관리인으로 파견되어 왔다.

그런데 조신스님은 고을 원님 김흔공의 딸을 홀로 연모하여 낙산사 원통보전에 여러 번 나아가 그 원님 딸과 인연이 맺어 질 수 있도록 관음보살에게 남몰래 날마다 기도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말았다. 조신은 관음보살상 앞에서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꿈속에 빠져들었다.

조신 스님, 꿈속에서 소원 이루다

그런데 꿈에 김씨 남자가 다가서며 '저도 속으로 스님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명령을 못 이겨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습니다. 하고는 이제 스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자 다시 왔습니다.'

조신은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한 것을 매우 기뻐하며 원님의 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삼국유사 표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조신은 소원이 꿈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신 부부는 자녀 다섯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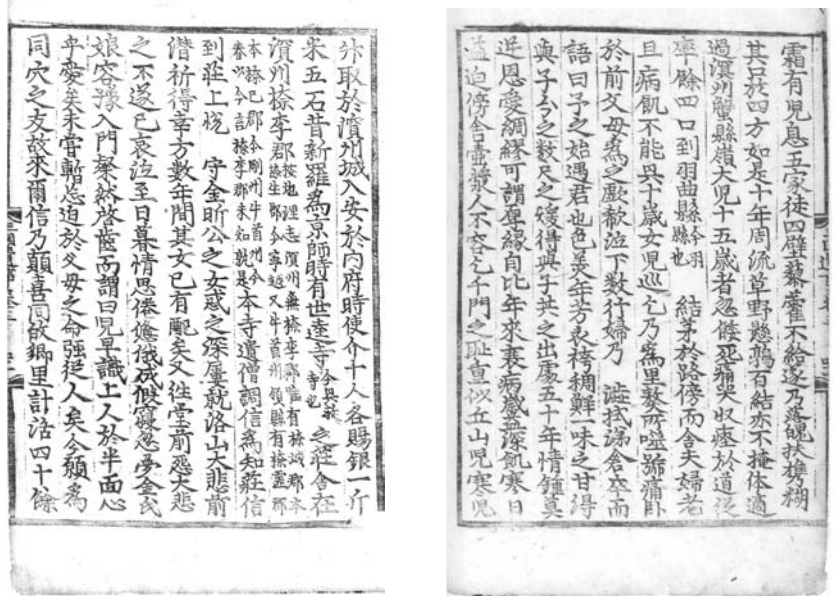
조신 생활고에 빠지다.

그러나 식구가 늘어났지만 농사 기술도 없어 점점 가난하여 생계를 꾸리기조차 어려웠다. 10여 년을 사방으로 돌아다녀서 옷은 찢어지고 열다섯 살 큰아이는 굶어죽기까지 하여 익령[翼嶺:양양 옛 이름] 해현[蟹峴:기고개-기정리와 사례의 사이고개]에 묻고 네 아이들을 데리고 우곡현(강릉 옥계)의 길가에 뗏집을 짓고 살았다.

늙고 병들었으며 또한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열살 난 딸이 밥을 얻으러 남의 집 문턱에서 개에 물려 울면서 와서 부부 앞에 놓자 부모도 함께 흐느껴 울었다. 부인이 눈물을 훔치면서 갑자기 말했다.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다웠고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고운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옷감이 생겨도 당신과 함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온지 15년, 정은 더할 수 없이 쌓였고 사랑은 얽히고설켜 정말 두터운 연분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늙고 병들고 날로 더욱 깊어가고 굶주림과 추위는 날로 더욱 핏박하게 되었습니다. 한 칸의 결방, 한 병의 간장의 구결도 사람들은 용납해 주지 않았고 수많은 집 문전에서 수치는 무겁기 산더미 같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쳐있어도 그것 하나 면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겨를에 가정의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젊은 얼굴에 예쁜 웃음은 풀잎 위의 이슬 같고 굳고도 향기롭던 그 기약도 한갓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 같구려! 당신에게는 내가 있어서 짐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곰곰히 지난날의 환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번뇌로 오르는 계단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조신의꿈

가족이 나누어 살기로 하다.

우리가 모여 있다가 함께 굶어죽기 보다는 차라리 식구들을 나누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경(順境)일 때는 붙들고 역경(逆境)일 때는 버리는 것이 차마 하지 못할 짓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가고 머무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오? 헤어지고 만남에는 운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합시다.

조신은 아내의 제의를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아이들을 각각 둘씩 나누어 갈라서려 할 때 아내가 다시 말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서로 잡았던 손을 막 놓고 돌아서서 길을 나서려 할 때 조신은 꿈에서 깨어났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자신은 관음보살상 앞에 엎드려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쇠잔한 등불은 어스름한 불 그림자를 너울거리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조신 꿈 깨어 청토사를 세우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히 낮이 나간 듯 인간세상에의 뜻이라곤 전혀 없었다. 이미 인간의 그 고된 세상에 대해 염증을 느껴짐이 마치 실제 백년의 신고(辛苦)에 시달린 것 같았다. 탐욕의 마음은 얼음이 녹듯이 없어져 버렸다. 이에 관음보살의 모습을 대하기가 부끄러워 참회를 금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해현으로 가서 꿈에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니 그곳에서 돌미륵이 나왔다. 깨끗이 씻어서 낙산사에 봉안하고 경주로 돌아가 장원 관리 임무를 벗었다. 그리고 사재를 들여서 청토사를 세우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았다.



낙산사 꿈이 이루어는 길

양양해변전망대 및 주변관광지

1. 수산항 전망대



수산항 뒷산 정상인 옛 봉수대 자리에 세워진 수산항 전망대에 오르면 남쪽으로는 하조대 남애항, 북쪽으로는 낙산물치항까지 조망할 수 있어 예로부터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는 명소로 꼽혀 왔다.

※ 주변관광지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요트마리나

2. 남애항 전망대



현남면 남애리 일원 534㎡면적.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탐방시설조성. 1980년대 추억의 영화 '고래사냥' 촬영지로 유명한 강원도 3대 미항중 하나로 꼽히는 양양 남애항 기암절벽에 위치한 전망대이다.

3. 하조대 전망대



현북면 하광정리 일원에 194㎡ 규모. 일출명소로 유명한 하조대에 위치한 등대모양을 한 스카이 워크로 전망대에 오르면 동해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고, 암석해안과 기암절벽 푸른 동해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다.

※주변관광지 : 하조대, 하조대등대, 3.1만세운동유적비, 명주사

4. 죽도 전망대



현남면 인구항 인근 바닷가 야산인 죽도 정상에 4층 규모, 높이 19.73m의 전망대. 위쪽에 올라가면 북쪽 시변리 해변과 남쪽 인구해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모습도 볼수 있는 전망대이다.

※주변관광지 : 죽도정, 죽도암, 휴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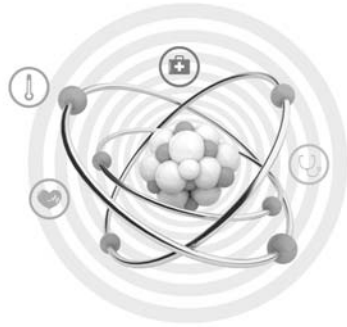
5. 용호리 바다전망대



강현면 용호리에 위치한 용호리 바다전망대는 156.35㎡의 규모로 탁트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고 속초대포항과 낙산사 해수관음상까지 조망되는 천혜의 절경구간이다.

※주변관광지 : 낙산사, 의상대, 진전사지3층석탑, 부도

류마티스 관절염



정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발생하지만 점차 주위의 연골과 뼈로 염증이 퍼져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초래하게 된다.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 외 증상으로 빈혈, 건조증후군, 피하 결절, 폐섬유화증, 혈관염, 피부 궤양 등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다.

원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면역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면역이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는 유전적 소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발병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폐경 초기에도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증상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관절 안에 있는 활막(synovium, 윤활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액 내의 백혈구들이 관절로 모여들게 되고, 그 결과 관절액(joint fluid)이 증가하여 관절이 부으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염증이 지속되면 염증성 활막 조직들이 점차 자라나면서 뼈와 연골을 파괴하여 관절의 모양이 변형되고, 관절을 움직이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형적으로 초기부터 손가락, 손목, 발가락 관절 등이 주로 침범되며, 병이 진행함에 따라 팔꿈치관절, 어깨관절, 발목관절, 무릎관절 등도 침범된다. 이러한 관절에 통증, 뻣뻣함, 종창(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인하여 부어 오른 것) 등의 증상이 수 주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전구증상과 관절증상, 관절 외 증상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전구증상 : 2/3정도의 환자에서 피로감,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애매모호한 근육 및 관절 증상이 먼저 나타나며, 이어서 활막염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구 증상은 수 주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나타나며 이 단계에서는 진단이 어렵다.

2) 조조강직 : 조조강직이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는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있는 경우 관절이 뻣뻣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움직이는 것이 좋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러한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3) 관절증상 :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의 중요한 특징은 침범된 관절의 통증과 종창이다. 진단에 중요한 증상은 손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의 중간마디와 손바닥 부위를 잘 침범하고, 손가락 끝마디의 관절은 잘 침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침범된 관절은 만지면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며, 손바닥의 홍반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손목을 뒤로 굽히는 데 장애가 생기고 손가락을 굽히는 데에도 장애가 생긴다.

주먹을 꼭 쥐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증상은 진단뿐 아니라 질병의 활성도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 잘 침범되지 않지만, 전 기간을 놓고 보면 80% 이상의 환자에서 침범된다. 침범된 무릎은 부어 오르고 압통이 있으며 관절액의 삼출도 잘 나타난다. 그 밖에도 팔꿈치, 발과 발목, 엉덩이 관절, 척추, 턱 관절을 침범할 수 있다.

4) 관절 외 증상 :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이외에도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다. 피하 결절은 팔꿈치, 손가락, 치골, 아킬레스건 등에 나타나는 딱딱한 결절이다. 또한 빈혈이 잘 동반되는데 이는 질병의 활동도, 특히 관절의 염증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심장, 폐, 눈, 신경, 간 등에서 전신 침범이 발생하면 병의 경과 및 치료 결과가 나쁠 수 있고, 특히 혈관염, 아밀로이드증, 폐섬유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신 침범의 증상으로는 발열,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등이 있다.

진 단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실하게 진단하는 검사법은 아직 없다. 따라서 특징적인 증상, 검사 결과, 방사선학적 징후 등을 종합하여 의사의 판단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

현재 다음 7개의 항목 중 4개 이상을 만족하고 1)~4)의 항목의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내리게 된다.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평균 9개월 정도 진단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 1) 조조강직: 관절이나 관절 주변의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지속됨
- 2) 세 부위 이상에 나타나는 관절염: 의사의 진찰로 3개 이상의 관절에서 동시에 붓기와 삼출이 관찰됨
- 3) 손 관절의 관절염: 손목, 손가락 중간마디 관절, 손바닥 관절 중 한 관절 이상의 종창
- 4) 대칭성 관절염: 좌우측의 같은 관절에 증상이 나타남
- 5) 류마티스 결절: 뼈가 튀어나오거나 관절의 한쪽에 만져지는 피하 결절
- 6) 혈액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
- 7) X-선 검사에서 발견되는 뼈의 침식 징후

검 사

류마티스 관절염의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혈액검사와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및 류마티스 인자 검사가 있다.

1) 류마티스 인자 검사: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80%에서만 양성으로 나온다. 또한 정상인에서도 5%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하여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다만 류마티스 인자가 높은 사람은 관절 손상이 심한 경향이 있다. 류마티스 인자는 치료 후에도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 후에는 다시 검사하지 않는다.

2) 일반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다른 장기의 침범은 없는지 감시한다.

3) ESR(적혈구 침강속도), CRP(보체 반응 단백질): 염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혈액검사이며, 염증 시 그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치료

어떠한 약제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키지는 못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제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와 스테로이드, 항류마티스약제와 TNF 차단제 등이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와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완화하여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하며, 항류마티스약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다.

최근에는 항류마티스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하여 TNF(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중간 물질)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다.

1)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통 효과는 24시간 이내에 나타나지만 항염 효과는 7일 정도 지나서 나타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물로 인한 위장 장애이며, 이를 막기 위해 위장벽을 보호해주는 약물을 함께 쓰거나 소화기계 부작용이 적은 항염제를 선택하여 쓰기도 한다.

2) 스테로이드: 매우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다. 스테로이드는 복용 후 24시간 내에 항염증 효과가 나타나 증세를 호전시킨다. 그러나 질병의 경과가 변하거나 완치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항류마티스약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질병 초기에 항류마티스약제를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항류마티스약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해(병의 증상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유도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약제로는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설파살라진(sulfasalazine), 레플루노마이드(leflunomide), 항말라리아제 등이 있다. 6개월 이상의 치료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2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병용 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4) TNF 차단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중간 물질인 TNF를 차단하여 염증 반응을 막는 약제이다. 기존의 항류마티스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70% 이상 증상을 호전시키며, 기존 약제에 비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잠복 결핵의 활성화와 같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의논한 뒤에 투약해야 한다.

경과 합병증

류마티스 관절염은 환자에 따라 경미한 관절염에서부터 심각한 관절 외 침범으로 인한 주요 장기 손상까지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침범된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 관절의 피막 등이 두꺼워지고 점차 움직임이 제한되어 고정적인 관절 변형(병적인 변화가 일어난 부위가 관절운동에 따라 변형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2년 이내에 관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킨다. 관절 외의 폐,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침범한 경우 병의 경과 및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관절 외 증상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전반적인 사망률이 5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에만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수명은 일반인과 비슷하다.

예방방법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은 예방할 수 없지만, 전문의에 의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관절 변형을 줄일 수 있다.

생활 가이드

1) 교육

환자로 하여금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약물을 잘 복용하게끔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관절염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휴식

관절염에 의한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고, 염증이 있는 관절을 쉬게 하여 염증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쉬는 시간을 늘리고 염증이 가라 앉을수록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3) 운동

관절염이 심한 활동기에는 약한 정도의 운동만 하는 것이 좋으며, 염증이 가라앉을수록 근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운동을 시행한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관절의 손상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이요법

현재 관절염에 효과가 입증된 식품은 어류의 불포화지방산뿐이다. 체중의 증가는 환자의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식욕 증가와 체중 증가가 있을 경우 식사의 양을 조절하도록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양양문화원 사무국



원 장

윤 여 준



사무국장

김 진 하



사무과장

최 선 미



주 임

강 차 현



주 임

홍 종 속



부 원 장

이 건 필



당연직 이사

탁 동 수



이 사

김 종 환



이 사

안 병 대



이 사

이 근 천

양양문화원 임원



원장

윤여준



감사

문명완



부원장

최종한



부원장

양순자



감사

윤복녀



이사

김남규



이사

김남극



이사

김정승



이사

김현수



이사

손영애



이사

손인환



이사

오철환



이사

윤정희



이사

이강열



이사

장형열



이사

최낙민



이사

홍순봉

(안동을 다녀오면서)

안동역

최 종 한 (양양문화원 부원장)

어스름 밀려드는 안동역에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 없고
딱히 누구와 한 약속도 없지만
황량한 마음은 가을비에 젖네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역사엔
사람을 기다리는지
열차를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마음들이 서성거리네
역사에 흐르는 애수의 노랫가락
이방인의 걸음마저 돌려 세우고

바람결에 회한의 낙엽 흩날리듯
인생도 결국 저와같이 같으리
쌓이는 낙엽이 무릎까지 덮여도
한 번 떠난 사랑은 오지 않으리
우리 흘러간 인생도
결코 다시 오지않으리
안동에서 내가 부른 노래는 안동역이지만
정작 나를 불러 세운 건 안동이고
나를 사무치게 부른 것 또한 안동역이더라



2018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양양군민 문화상 홍이표 · 김광영 · 박상혁 이태우씨 선정 시상식 내달 21일

2018.05.30. 강원도민일보 - 최훈 기자



홍이표 씨 김광영 씨 박상혁 씨 이태우 씨

올 양양군민 문화상 수상자로 홍이표 국악협회 양양문화예술단장과 김광영 연구원, 박상혁 전 군의원, 이태우 한국자유총연맹 지회장 등 4명이 선정됐다. 문화예술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홍 단장은 양양문화원에서 사물놀이 지도를 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학술분야 김 연구원은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부설 향토사연구소를 직접 개설해 향토문화 발굴사업에 매진해 왔다.

사회봉사분야 박상혁 전 의원은 10년째 독거노인 재가봉사와 함께 태안 기름유출 현장과 수해·산불현장 등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지역개발분야 이 지회장은 숲가꾸기 사업과 경제림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탄소 저감에도 기여해 왔다.

한편 시상식은 내달 21일 남대천 둔치에서 열리는 양양문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제40회 양양문화제 21일 개막

2018.06.19.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 어경인 기자

양양군 향토문화축제의인 양양문화제가 21부터 23일까지 사흘 간 지역문화의 발상지인 남대천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19일 군에 따르면 양양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유구한 역사 속에 선사·불교·호국문화를 활짝 꽃 피운 양양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화제는 21일 오후 3시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고치 물제와 장군성황제를 통해 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오후 4시에는 애국충절의 고장답게 현상공원 앞 광장에서 전문배우와 지역 주민 100여명이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선보인다.

재현행사 후에는 각급 학교와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8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 어사 행차, 대포수군 만호행차, 풍물패, 재등행렬 등 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규모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시가행진단이 남대천둔치 특설무대에 도착하면 올해 군민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개최식이 진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분야 홍이표(양양문화예술단 단장), 학술분야 김광영(前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사회봉사분야 박상혁(前양양군의회 의원), 지역개발분야 이태우(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장) 등이 각각 군민문화상을 수여받는다.

이후 식후행사로 군민노래자랑 등이 진행되며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올해 40돌을 맞이한 양양문화제 개막을 자축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8군단 특공대대의 특공무술 시범, 어린이 유도시범과 함께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골 농요소리 민속시연이 펼쳐진다.

이날 저녁에는 박상철, 한혜진, 건아들, 스페이스A 등 인기가수 초청공연도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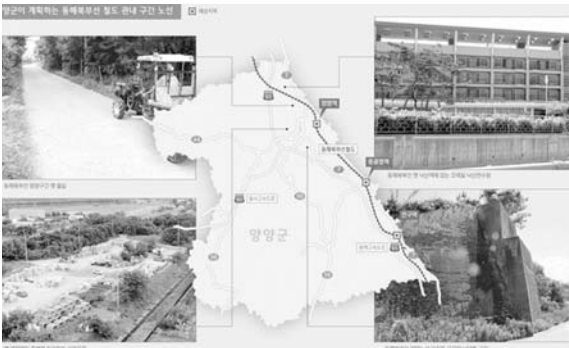
22일과 23일에는 그네뛰기와 목침뺏기, 투호놀이, 탁장사놀이 등 읍·면 대항 민속놀이와 체육경기도 본격적으로 치러진다.

부대행사로는 전국한시현장백일장, 농업경영인 농·특산물전시회, 향토음식 체험, 공예특산물 전시, 굿당 공연, 옛사진 전시회 등 28개 기관·단체에서 축제 행사장 내에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올해 40번째로 개최되는 양양문화제는 기미년 3·1 독립정신과 호국문화의 진원지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향토문화축제”라며 “지방선거로 불거진 불편한 감정은 모두 내려놓고 군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양군 향토문화축제 양양문화제 21일 ‘팡파르’

2018.6.20. 매일일보 - 이상훈 기자



양양군 향토문화축제인 양양문화제가 21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역문화의 발상지인 남대천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윤여준)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유구한 역사 속에 선사·불교·호국문화를 활짝 꽃 피운 양양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1일 오후 3시,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통해 문화제의 시작을 알리고, 오후 4시에는 애국충절의 고장답게 현상공원 앞 광장에서 전문배우와 지역주민 100여명이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선보인다.

재현행사 후에는 각급 학교와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8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 어사 행차, 대포수군 만호행차, 풍물패, 재등행렬 등 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규모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시가행진단이 남대천둔치 특설무대에 도착하면 올해 군민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개회식이 진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분야 홍이표(양양문화예술단 단장), 학술분야 김광영(前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사회봉사분야 박상혁(前양양군의회 의원), 지역개발분야 이태우(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장) 등이 각각 군민문화상을 수여받는다.

이어 식후행사로 군민노래자랑 등이 진행되며,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올해 40돌을 맞이한 양양문화제 개막을 자축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8군단 특공대대의 특공무술 시범, 어린이 유도시범과 함께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골 농요소리 민속시연이 펼쳐진다. 이날 저녁에는 박상철, 한혜진, 건아들, 스페이스A 등 인기가수 초청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전망이다.

22일과 23일에는 그네뛰기와 목침뺏기, 투호놀이, 탁장사놀이 등 읍·면 대항 민속놀이와 체육경기도 본격적으로 치러진다. 6개 읍·면 주민들은 지역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전국한시현장백일장과 농업경영인 농·특산물전시회, 향토음식 체험, 공예특산물 전시, 굿당 공연, 옛사진 전시회 등 28개 기관·단체에서 축제 행사장 내에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올해 40번째로 개최되는 양양문화제는 기미년 3·1 독립정신과 호국문화의 진원지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향토문화축제”라며, “지방선거로 불거진 불편한 감정은 모두 내려놓고 군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집 기획 “동해북부선, 그냥 열차 아닌 꿈이 담긴 철길이었다”

[통일길 '동해북부선'을 열자] 2. 양양 구간 현장을 가다
종착역이자 출발역이던 양양역 6·25 전쟁 때 집중폭격 후 폐허
여관·식당 즐비하던 역 일대엔 기차 플랫폼·일부 노반만 남아
주민 “영북지역 변화한 중심부 금강산 관광 꿈 신던 애환담겨”

2018.6.20. 강원도민일보 -이종재기자

동해북부선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이었던 양양역과 선로는 지금 사라져 옛 성세초차 구전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사라진 역터에는 잡초가 가득하고 농로로 변한 선로에서는 더이상 기차가 다닐수 없지만 역사 주변에 남겨진 플랫폼 흔적과 하천에 덩그러니 남은 일부 교각들은 이곳이 기차길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본지 취재진의 요청으로 철길 흔적을 쫓던 팔순의 주민은 “동해북부선은 그냥 열차가 아니다. 동해안 서민들에게는 가족의 희망인 자식을 대치(서울, 일본)에서 교육시킬 수 있었거나, 가족 모두 인생에 단 한번 갈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의 꿈을 실어나르던 애환이 담긴 철길이었다”고 회상했다.

양양역-흔적도 없이 사라진 옛 동해북부선 출발지

1937년 12월1일 개통한 양양역,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동해북부선의 대표적인 철도역이다. 원산까지 이어졌던 동해북부선의 종착역이자 출발역으로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창고들이 둘러싸고 있을 정도로 역사 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운행이 중단된 1950년까지 14년간 양양과 원산을 이어주는 역사는 기간 시설물인 탓에 한국 전쟁 당시 집중 폭격을 맞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본지 취재진이 찾아가 본 옛 양양역이 있던 자리에는 석재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이 일대는 철도청 부지여서 석재공장은 물론 주변 논밭은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며 사용하고 있다. 과거 기차길로 쓰였다는 좁은 길을 쭉 따라가다보니 우거진 수풀 속에서 기차 플랫폼(승강장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을 어렵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기차 플랫폼과 곳곳에 남아있는 노반만이 이곳이 과거 역사였고 기차가 달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채복성(80·양양)씨는 이 플랫폼에 대해 “일제가 만든 기차 플랫폼”이라며 “당시 철도국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자주 놀러왔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착역이었던 양양역은 기차를 돌릴 수 있는 철로가 여러 개였고, 규모도 제법 큰 편에 속했다”고 회상했다.

▲ 철도노동자였던 김지윤(84·양양)씨가 일제시기 양양광업소

의 철광물을 광산에서 동해북부선 옛 양양역까지 실어 나르던 철길을 가르키고 있다. 박상동

그는 또 “서울과 금강산을 가려는 사람들, 공부를 하는 학생들 등 많은 사람들이 양양역에 몰려 일대가 북적였다. 역사 주변에는 수많은 여관과 식당들이 즐비했다”고 증언했다. 채씨에 따르면 당시 양양지역은 영북지역에서 크고 변화한 도시였다. 양양역에서는 하루 4차례씩 양양의 철광석을 가득 실은 증기기관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원산방면을 향해 달렸다고 한다. 당시 1층 단층건물로 지어져 있던 양양역에는 역장을 비롯 선로반, 기관부 직원 등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근무를 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관사도 여러 채 있었다.

운행당시에는 원산~양양 간 여객열차가 오가면서 지역주민과 금강산 등을 찾는 관광객 등의 이용도 많았다. 오전 5시 양양역을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오후 4시, 오후 9시 등 하루 4차례 운행했던 열차는 원산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의 통학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 양양역 주변과 하천에 설치된 교각은 이곳 마을 아이들에게는 놀이공간으로 이용됐다. 채씨는 “어릴 때는 하천 곳곳에 설치된 ‘삐얏돌(교각)’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놀았다”며 “현재는 대부분이 철거됐지만 끝부분 삐얏돌은 양양과 속초, 고성지역 군데군데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중단철도 노선인 동해북부선은 객차와 함께 15~20량 정도의 화물칸이 함께 운행됐고, 화물칸에는 양양지역의 목재와 자철광업소의 철광이 가득 담겨있었다. 그러나 8·15 해방으로 양양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공사가 중단, 동해북부선은 이름 그대로 동해 북부에서만 운행하는 기차가 됐다. 이후 1950년 6·25전쟁 중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 양양역사와 철로가 완전히 파괴됐다. 1953년 영업을 재개했으나 서류상의 부활이었고, 1967년 공식 폐역될 때까지 열차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영북지역을 대표하던 양양역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옛 동해북부선의 흔적들이 일제 수탈의 산 역사이자, 지역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향토사학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고 기록 및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정부가 교각 등 동해북부선 흔적을 일제의 잔재로 보고 철거할 당시 강력히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김광영(65·전 사무국장) 연구원은 “양양역은 당시 우리 고장의 가장 큰 건물이었지만 사진 등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 현재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해 그림으로나마 양양역의 모습을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토사연구소 김양식(73·춘천면옥 대표) 연구원은 “당시 양양역사 외관은 속초박물관에 재현해놓은 속초역과 비슷했지만 규모는 훨씬 컸다”며 “동해북부선 가운데 양양~원산구간은 당시 영동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길이었던 만큼 상징성이 크다. 양양구간 노선이 기존 노선을 쓸지, 새 노선을 쓸지도 관심사다”고 말했다.

제40회 양양문화제 성료...군민 화합에 기여민 속놀이 현북면·강현면 공동 우승, 체육경기 강현면 우승, 농악 손양면 1위

2018.6.25. 매일일보 시상훈 기자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윤여준)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한 제40회 양양문화제가 지난 21일부터 23일 까지 사흘간 1만 명 이상의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해 지역화합의 축제로서 부족함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선거 과정에 불거진 군민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치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문화제 첫 날인 21일 현상공원 앞 사거리에서는 양양군 연극협회 배우와 양양고·양양여중 학생, 보호단체 회원 등이 기미년 양양지역의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진행해 호국문화가 담겨 있는 문화제의 의미를 더했다.

각급 학교와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800여명이 함께한 시가행진은 단연 양양문화제의 백미였다. 시가행진단은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어사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등 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6개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들은 이른 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동안 다져온 농악 실력을 멋지게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6개 읍·면 모두가 훌륭한 공연을 펼쳤지만, 우승은 손양면이 가져갔다.

이어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당당히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동골 상여소리와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26호로 지정된 상복골 농요 시연이 펼쳐져 대중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씨름과 줄다리기, 목침뺏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16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 민속놀이 경기에서는 현북면과 강현면이 동점을 받아 공동 우승했으며, 체육경기에서는 강현면이 1위를 차지해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밖에도 전국한시현장백일장과 공예특산품 전시, 양양 옛사진 전시회, 아나바다장터 등 28개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야간행사로 진행된 군민노래자랑과 초청가수 공연도 구름 관중이 함께하며 끝났다.

한편, 문화제 기간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전통음식학교에서 전통주와 수제맥주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홍보·시음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직접 만든 진향주와 드라이 스타우트, 벨지안 위트, 아메리칸 IPA, 페일 에일 등 수제맥주를 선보여 창업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윤여준 위원장은 폐막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제40회 양양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보여준 화합과 결속이 지역 발전과 양양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28일 여름밤 문화공연 진행

2018.7.27.뉴스1 - 최석환 기자

양양군은 28일 오후 양양 현상공원에 조성된 야외공연장에서 양양문화원이 여름밤 문화공연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원은 평소 문화예술과 접하기 힘든 군민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화학교 동아리 600합창단과 대금, 난타, 통기타, 색소폰, 사물놀이, 민요 등 7개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꾸몄다.

윤여준 문화원장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군민이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여름밤의 문화공연

2018.7.28. 강원일보 - 박기용 기자

양양문화원(원장:윤여준)은 28일 오후 8시 현상공원 공연장에서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여름밤의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공연에 참여하는 문화학교 동아리는 합창단과 대금, 난타, 통기타, 색소폰, 사물놀이, 민요 등 7개 프로그램으로 모두 100여명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양양문화원, 한여름밤의 문화공연 28일 개최

2018.7.27. 국제뉴스 오형상 기자

오는 28일 저녁, 양양 현상공원에서 여름밤 무더위를 촉촉이 적셔줄 문화예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양양문화원(문화원장 윤여준)은 28일, 저녁 8시부터 현산근린공원에 조성된 야외공연장에서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여름밤의 문화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원은 수강생들이 문화학교를 통해 그간 배워온 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임으로써 자부심을 배양하고, 평소 문화예술과 접하기 힘든 군민들에게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 참여하는 문화학교 동아리는 600합창단과 대금, 난타, 통기타, 색소폰, 사물놀이, 민요 등 7개 프로그램으로 모두 100여명이 무대에 올라 전통가락과 서양악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윤여준 문화원장은 "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참여공연으로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군민이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문화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여가향양을 통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개강에 들어간 2018년도 문화학교에는 한글서예와 한시, 난타, 사물놀이 등 모두 11개 강좌에 283명 주민이 수강 중이며, 조선후기의 천재 대금 연주자 허억봉 선생을 선양하는 대금 과정에도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소리꾼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2018.8.7.강원일보 - 박기용 기자

양양문화원(원장:윤여준)은 9월12, 13일 이틀간 양양에서 열리는 제8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2001년 개최 후 2002년 도대회로, 지난해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하고 있다.

예심을 거쳐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와 개인 등 총 10개 팀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부터 30만원을 전달한다.

접수기간은 31일까지이며 양양문화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우

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여준 원장은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양양 사천리 '서각공방' 문열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 서각교육

2018.8.17. 강원도민일보 - 최훈 기자



▲ 양양읍 사천리 서각공방이 16일 문을 열었다.

양양읍 사천리(마을대표 박상형) 서각공방이 16일 문을 열었다. 올해 농촌진흥청의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문을 연 서각공방은 마을회가 주축이 돼 매주 화요일 전문강사를 통해 서각교육을 진행한다.

2016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서각반을 수강한 주민들은 그동안 양양문화제와 강원문화대축전, 강원어르신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에 출품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서각대전에서 입선함에 따라 이번에 본격적인 서각공방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최 훈

동구리 전통 민요 경창대회 내달 12일 양양 문화복지회관

2018.8.24. 강원도민일보 - 최훈기자

제8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내달 12일부터 13일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개최하는 동구리 경창대회는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조선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 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민요 경창대회다. 처음 지역행사로 시

작된 동구리 경창대회는 2011년부터 도 단위 대회에 이어 타지역 경창대회와는 달리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이 평가돼 지난해부터는 전국단위로 개최되고 있다. 최 훈

양양군, 12~13일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2018.9.11. 뉴스1 - 고재교 기자



양양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양양군 제공) © News1
양양군은 12~13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제8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동구리 경창대회는 우리 음악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민요 경창대회다.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조선 세조로부터 '악공(樂工)의 예'로 대우받은 양양지역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기 위해 양양문화원이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창대회에는 일반부 단체 8팀, 일반부 개인 36명, 학생부 9팀 등 전국 53개 단체가 참가한다.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신민요를 제외한 전통민요를 통해 실력을 겨룬다.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재현하는 행사 등 이색적인 볼거리로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도 알린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한다"며 "경창대회를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도 단위 대회로 개최됐으며 타 지역 경창대회와는 다르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음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178개 단체에서 소리꾼 695명이 참가했다.

전국 53개 단체 전통민요 실력 겨룬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오늘 개막 국악인 김소희 초청공연 등 볼거리

2018.9.12. 강원도민일보 - 최훈기자

제8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12,13일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관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조선 세조로부터 악공의 예로 대우받은 양양지역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 온 민요 경창대회이다.

지역 행사로 개최하다 지난 2011년 도 단위 대회에 이어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된 경창대회는 올해 일반부 단체 8팀,개인 36명,학생부 9팀 등 전국에서 53개 단체가 실력을 겨룬다.12일 예선에 이어 13일 열리는 본선 경연에서는 식전행사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시범공연에 이어 지난해 우승팀과 대금연주가 최명호,한가람풍물패,국악인 김소희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또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려 나갈 방침이다.

윤여준 문화원장은 "동구리 경창대회는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라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훈

1년간 갈고닦은 노래·악기·춤실력 뽐낸

축제 한마당

강원문화대축전 1천명 참가 성료...

강릉문화원 대상

2018.11.22. 강원일보 - 최영재 기자

◆ 도문화원연합회(회장:류중수)가 21일 영월실내체육관에서 강원도의 문화-여(興)·기(技)·예(藝)를 주제로 2018 강원문화대축전'을 개최했다.

도문화원연합회(회장:류중수)가 주최한 2018 강원문화 대축전'이 21일 영월실내체육관에서 문화원 가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원의 문화-여(興)·기(技)·예(藝)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18개 시·군 문화원(문화학교)이 진행한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 활동들을 정리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제1부 개최식에서는 강릉문화원(원장:최돈실)이 대한민국문화원상 종합경영 분야 대상을, 평창문화원(원장:이육환)이 우수상을, 정선문화원(원장:윤형중)이 우수프로그램상을, 철원문화원(원장:양원석)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또 정정옥(태백)·이은경(삼척)·박양순(횡성)씨에게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이 전달되는 등 42명의 문화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 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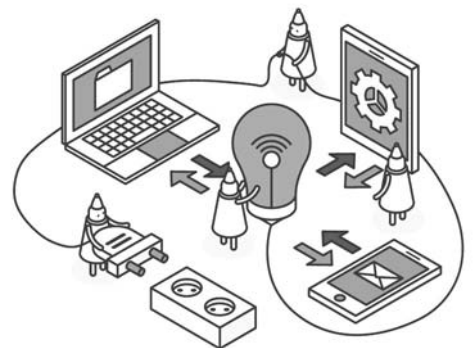
2부는 각 문화원별 공연이 펼쳐졌다. 평창문화원 합창단의 합창을 비롯해 양양문화원 어울소리민요단의 민요, 원주 켄베동아리의 악기 연주, 인제 알콩달콩 댄스스포츠팀의 댄스공연 등이 인기를 끌었다.

행사에는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과 이경동 전 회장, 윤성보 도문화관광체육국장, 최명서 영월군수, 박윤미 도의회 부의장, 윤길로 영월군의장, 신명순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문화원장들이 참석했다.

오순도순

2018.12.11. 강원도민일보 - 최훈 기자

- ◆ 한국양봉협회 양양지부(대표 이상경)는 10일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을 기탁.
- ◆ 양양문화원 어울소리민요단은 10일 이웃돕기성금 50만원을 기탁.



편/집/후/기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도 문화가족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은혜로 1년 동안 여러 사업과 행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나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전국대회로 승격하여 시작한지 올해 두 번째의 대회임에도 전국에 전통 민요를 알리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행사 또한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고, 한여름 밤의 문화향연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문화행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화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염려와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문화원 직원들은 한 해 동안 여러 행사를 잘 기획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원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띠의 해입니다. 옛 부터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 살림을 늘려주므로 전통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동물이며 노란색은 금을 상징하며 재물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황금물결이 넘치길 바라며 문화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생각하며 ---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진하

양양문화 제30호

2018年 12月 22日 印刷

2018年 12月 26日 發行

발행인 : 윤 여 준

편집인 : 김 진 하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전기공사전문업체

영광전기(주) (주)소명전기



대표이사 **맹 순 환**

강원도 양양군 · 읍 양양로 110 1층

T. (033) **673-3478**

F. (033) **673-3479**

E-mail. msh3478@hanmail.net



책임시공/ AS관리철저

미래의천년大界 성우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회사소개

- 시설물 유지관리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주요 공사업종

- 건물신축
- 리모델링공사
- 인테리어 공사



주성우건설
SUNGWOO CONSTRUCT CO., LTD.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0
Tel.033-672-0401 Fax.033-672-0402
e-mail. yesgada007@naver.com



대한민국의 맥을 잡다

환경친화적 레미콘, 골재 전문브랜드 맥산
 레미콘의 KS인증공장 지정과 골재생산플랜트의 부순모래 및 단입도(맞춤형) 골재 생산시설의 확장으로 최고(最高)의 제품으로 최선(最善)의 서비스와 최상(最上)의 감동으로 고객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KS인증업체



회장 김규석

(주)양양레미콘 / (주)솔향레미콘 / 양양자원개발(합) / 명일산업개발(합)
 (주)맥산주유소 / 대한광물(주) / (주)맥산산업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9-1 진흥빌딩4층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2643
 강원도 양양군 서면 들돌길436
 강원도 양양군 서면 들돌길449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산15

T. (033) 671-0841~3
 T. (033) 671-7755
 T. (033) 672-8000
 T. (033) 672-7979
 T. (033) 671-9925

F. (033) 673-2228
 F. (033) 673-3456 (주유소)
 F. (033) 672-6747 (골재사업부)
 F. (033) 672-6747 (레미콘사업부)
 F. (033) 673-2228 (광산개발사업부)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 노인복지관

양양시니어클럽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도서관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